우성이와 지성이 이야기 정원

그림책 70편

함께 사는 하루



개정판 v03 · 가안(저자 승인 전) · 2026-11-14

차례

1 부 ·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요 9

1. 숨바꼭질이 끝나고 10

2. 아직 인사하는 중이야 12

3. 주머니 안의 딱딱한 것 14

4. 손수건만 한 고요 16

5. 고맙다는 말의 주소 18

6. 오늘은 이름을 불러 줘 20

7. 베개가 먼저 듣는 이야기 22

8. 기도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것 24

2 부 · 같이 사는 법을 배워요 27

9. 씨앗을 뒤집어 보지 마 28

10. 가시는 먼저 인사했어 30

11. 형아는 다 아는 줄 알았지 32

12. 모리 수첩의 빈칸 34

13. 빈백을 빌려 드립니다 36

14. 미안해 다음에 할 말 38

15. 보리 몫은 어디 있지 40

16. 아무도 안 보는 문고리 42

3 부 · 뇨끼의 고향으로 가요 45

17. 돌아올 자리도 챙겨 46

18. 수통 하나가 더 필요해 48

19. 지도가 접힌 쪽 50

20. 샘 앞에서 손을 펴 봐 52

21. 발자국이 크면 좋을까 54

22. 목도리의 남는 쪽 56

23. 작은 목소리도 데려가 58

24. 돌아오는 길은 누가 먼저 알까 60

4 부 · 가을 식탁에 모여요 63

25. 작은 바구니가 먼저 찼어 64

26. 반쪽을 들고 왔어 66

27. 대답이 늦게 도착해 68

28. 오늘은 함께 앉는 날 70

29. 등불은 손잡이가 있어 72

30. 문 앞에 놓고 갈게 74

31. 눈을 뜨고 있어도 돼 76

32. 아직 못 만난 친구 78

5 부 · 겨울을 지나 다시 문을 열어요 81

33. 시계보다 먼저 온 친구 82

34. 달빛 쪽에 앉아 84

35. 아침 인사가 늦었네 86

36. 보리와 쿠마타 몫의 담요 88

37. 못 본 척하면 끝날까 90

38. 깨우지 않는 선물 92

39. 내가 먼저 열어 줄게 94

40. 문을 닫기 전에 96

6 부 · 같이 묻고 같이 배워요 99

41. 오리가 둘인데 100

42. 버스가 아직 안 가는 까닭 102

43. 책을 덮지 말고 잠깐 104

44. 내 노래는 여기쯤 106

45. 누가 놓고 갔을까 108

46. 오늘 이야기는 지성이 차례 110

47. 싫다는 말까지 들려도 112

48. 그늘은 누구 거야 114

50. 같이 살고 싶은 이야기 116

7 부 · 비 오는 날의 마당 잔치 119

51. 잔치가 먼저 젖었어 120

52. 큰 천의 작은 구멍 122

53. 두두의 빗물 악단 124

54. 느루가 맡은 문 126

55. 돌멩이들은 회의 중 128

56. 한 뼘도 내주기 싫어 130

57. 운동화가 쉬는 자리 132

58. 종소리 말고도 134

59. 깃발이 거꾸로 136

60. 비는 멎었는데 138

8 부 · 오래 함께 살고 싶어서 141

61. 주머니가 두 개인 날 142

62. 햇님 달님께 드릴 그림 144

63. 형아 없는 오후의 목록 146

64. 뇨끼는 문밖에 있어 148

65. 그늘에서도 인사해 150

66. 잠깐 빌린 말 152

67. 쿠마타는 왜 기도해 154

69. 아직 그리지 않은 방 156

70. 불을 끄러 갔다가 158

따로 엮는 『우리 가족 이야기』 161

1부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내요

1~8편

1 / 70

숨바꼭질이 끝나고

수레 속에 혼자 남은 우성이



우성이는 빈 수레 속에 쏙 숨었어요. 바퀴 밑으로 신발 끝이 조금 나왔지만, 이만하면 아주 잘 숨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찾으러 오는 발소리는 없었어요.

보리는 빵이 탈까 봐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모리는 굴러간 나사를 따라갔고요. 술래였던 두두는 누구를 찾는 중인지 잠깐 잊었어요. 우성이는 수레 안에서 무릎을 꼭 안았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우성이는 손등 위의 빛을 보았어요. '햇님, 저 여기 있어요. 잘 숨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조금 싫어요.' 말을 하고 나니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직 끝내기는 싫어요.'

수레 밖에서 지성이 목소리가 났어요. '형아, 바퀴에 발 났어.' 우성이는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지성이가 수레 가장자리에 턱을 걸쳤어요. '같이 숨어도 돼?'

둘이 들어가니 수레가 삐걱했어요. '조용히 해. 들키겠어.' '형아는 아까 누구랑 말했어?' 우성이는 손등을 내밀었어요. '햇님께. 아무도 안 오는 것도 말씀드렸어.' 지성이는 자기 손등도 빛 속에 놓았어요.

두두가 수레를 찾았을 때는 신발 끝이 네 개였어요. '여기 둘이나 있었네!' 지성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응. 형아 찾으러 왔다가 나도 없어졌어.' 우성이는 이번엔 참지 않고 웃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는 잘 정리된 말보다 오늘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아이의 서운함을 먼저 들어 주세요.

2 / 70

아직 인사하는 중이야

‘풀!’ 하고 외친 아침 기도



아침 식탁에서 보리가 두 손을 모았어요. 빵과 물, 밤새 자란 풀과 오늘 만날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이는 보리 입술을 따라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자기 차례가 되자 지성이는 눈을 꼭 감았어요. ‘햇님, 달님, 빵과 물과…… 밤새…… 그다음 뭐였지?’ 우성이가 옆에서 풀이라고 속삭였어요. 지성이는 얼른 ‘풀!’ 했어요.

해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풀도 먹어?’ 지성이는 눈을 떠 버렸어요. 식탁 둘레에서 작은 웃음이 났어요. 지성이 볼이 붉어지자 보리가 빵 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내 말 기억 안 해도 돼. 오늘 지성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지성이는 무릎의 헐렁한 양말을 만졌어요. '형아가 이거 찾아 줬어.'
'그걸 말씀드려도 좋겠네.'

지성이는 다시 손을 모았어요. '햇님, 달님, 양말 찾아서 고마워요. 형아도 고마워요. 오늘 빵도 먹을 거예요.' 눈을 뜨려다 다시 감았어요. '딸기 든 쪽이면 더 좋아요.'

우성이 손이 바구니로 갔어요. 지성이가 소매를 붙잡았어요. '아직 인사하는 중이야.' 지성이는 작게 덧붙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이 하나도 달아나지 않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아이에게 긴 기도문을 외우게 하기보다 인사와 감사 한 가지를 자기 말로 드리게 해 보세요.

3 / 70

주머니 안의 딱딱한 것

‘돌’이라고 한 팽이



우성이는 모리의 팽이를 빌리고 싶었어요. 모리는 아직 칠이 덜 말랐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알았다고 했지만, 모리가 붓을 씻으러 간 사이 팽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달릴 때마다 팽이가 허벅지를 콕 찔렀어요. 지성이가 뭐가 들었느냐고 물었어요. ‘돌.’ 우성이는 대답하고 더 빨리 걸었어요. 이번에는 마음 어딘가도 콕 했어요.

연두집 계단에서 우성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햇님, 저 지금 화났어요. 모리가 안 빌려줘서요.’ 주머니를 움켜쥐었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왔어요. 돌이라고도 했어요.’

우성이는 주머니를 뒤집었어요. 팽이가 툭 나왔어요. 붉은 칠이 손바닥에 묻어 있었어요. 지성이가 가만히 보았어요. '돌치고는 잘 돌아가겠네.' 우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모리네로 돌아갔어요.

모리는 팽이보다 손바닥을 먼저 보았어요. '씻으러 가자. 칠 굳겠다.' 우성이는 물소리 사이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모리도 속상했다고 말했어요. 둘은 물통 앞에 조금 오래 서 있었어요.

칠이 마른 다음 날, 팽이는 함께 돌렸어요. 우성이는 돌기 전에 주머니부터 뒤집어 보였어요. 모리가 웃었어요. '오늘은 돌도 없네.' 지성이는 진짜 돌을 하나 꺼냈어요. '나는 있어.'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에서 잘못을 말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돌려주는 행동을 함께 담았습니다. 화난 감정 자체를 꾸짖지 않습니다.

손수건만 한 고요

제일 큰 목소리로 '조용히!'



두두가 식탁 위에 손수건을 폈어요. '잠깐 기도할 거야. 모두 조용히!' 마지막 말이 얼마나 컸는지 피오가 놀라 한 발 뛰었어요. 해달은 귀를 막다가 들고 있던 돌을 놓쳤어요.

돌이 컵을 톡 쳤어요. 컵이 숟가락을 딸랑 쳤고요. 두두는 다시 조용히 하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 목소리부터 너무 바빴어요.

모리가 빈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손을 무릎에 놓아 볼까.' 친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손수건 모서리가 바람에 조금 들렸어요. 지성이는 그걸 잡으려다 손을 도로 무릎에 놓았어요.

우성이에게는 새 소리가 들렸어요. 지성이에게는 해달 배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입이 씰룩했어요. 모리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두두는 손수건을 잡으려던 손을 내려놓았어요.

두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햇님, 달님, 오늘 저희가 여기 모였어요. 제 말도, 친구들 말도 잘 듣고 싶어요.' 피오는 손수건 끝을 살짝 밟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자 해달이 손을 들었어요. '내 배가 먼저 말했는데, 그것도 들으셨을까?' 우성이는 참았던 웃음을 놓았어요. 손수건은 어느새 전부 피오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편안한 자세와 짧은 숨 고르기를 보여 줍니다. 오래 눈감기나 침묵을 신앙의 점수로 삼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의 주소

밀가루 묻은 보리 코끝



지성이는 딸기빵을 받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햇님, 빵 고마워요.' 그리고 크게 한 입 먹었어요. 보리가 빈 쟁반을 들고 옆을 지나갔어요. 코끝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우성이가 지성이에게 물었어요. '보리한테는?' 지성이는 입 안의 빵을 다 삼키고 대답했어요. '아까 했어. 햇님한테.' 우성이는 보리가 갔던 쪽을 보았어요. '보리는 아직 못 들었겠는데.'

둘은 부엌으로 갔어요. 보리는 바닥에 떨어진 반죽을 떼느라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있었어요. '빵 고마워!' 지성이가 말했어요. 보리가 일어나다 식탁 밑에 머리를 콩 했어요.

우성이는 의자를 옮기고, 지성이는 젖은 헝겊을 가져왔어요. 셋이 바닥을 닦았어요. 보리 발밑에만 자꾸 밀가루가 남았어요. 보리 발바닥에도 묻어 있었거든요.

깨끗해진 부엌에서 보리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지성이는 이번에는 보리를 보고 말했어요. '구워 줘서 고마워.' 그러고 창밖 빛에도 손을 흔들었어요. 말할 곳이 둘이라 바빴어요.

보리는 헝겊을 빨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지성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구한테?' 보리가 웃었어요. '지금은 너희한테.'

함께 읽는 어른께

감사를 기도 속 말에만 두지 않고 수고한 사람을 알아보고 돕는 행동으로 이어 봅니다.

오늘은 이름을 불러 줘

종이 밖으로 나간 뇨끼 목



뇨끼가 산 너머 친구를 만나러 잠깐 떠났어요. 마당에는 뇨끼 목이 지나가던 빈틈이 생겼어요. 피오는 전망대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지성이는 제일 높은 나뭇잎만 자꾸 보았어요.

저녁에 우성이는 뇨끼가 넘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성이는 뇨끼가 배고프지 않게 해 달라고 했어요. 해달은 목이 너무 길어 목도리가 모자라지 않게 해 달라고 했어요.

피오가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작게, '뇨끼.' 그 말 뒤에 친구들은 한동안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마당의 빈틈에도 저녁 바람은 지나갔어요.

‘그림 편지 보내자.’ 우성이가 종이를 폈어요. 지성이는 빵을 그렸어요. 해달은 자기 돌을 그렸는데 감자처럼 생겼어요. 피오는 뇨끼 목을 그리다가 종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우성이가 종이 한 장을 더 붙였어요. 그제야 뇨끼 얼굴을 그릴 자리가 생겼어요. 지성이는 얼굴 옆에 조그만 자리를 하나 그렸어요. ‘이건 돌아와서 앉을 데.’

다음 날 두두가 편지를 들고 출발했어요. 바람에 종이가 길게 펄럭였어요. 두두는 한참 걷다가 되돌아왔어요. ‘뇨끼 주소는 짧은데 편지는 아주 기네.’

함께 읽는 어른께

떠나 있는 친구의 이름과 필요를 떠올려 기도하고,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걱정을 과장해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베개가 먼저 듣는 이야기

축축한 바지 밑단과 베개 밑 돌



잠자리에 누운 지성이가 오늘 제일 좋았던 일을 말했어요. '물웅덩이가 컸어.' 우성이가 이불을 들췄어요. 바지 밑단이 아직 축축했어요. 그건 우성이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던 일이에요.

'내가 뛰라고 했잖아.' 지성이가 발을 꼼지락했어요. 우성이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더 큰 웅덩이로 가자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맞아. 나도 했어.'

우성이가 침대 옆 창을 보았어요. '달님, 오늘 동생이랑 많이 웃었어요. 그러고는 옷 젖었다고 동생한테만 화냈어요.' 말하다 보니 지성이가 이불 끝을 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바지 말리는 거 같이 할게.' 지성이가 말했어요. 우성이는 손을 내밀었어요. 침대 사이에서 두 손이 만났어요. 지성이는 고맙다는 말 대신 형 손가락을 하나씩 세었어요.

지성이는 자기 차례의 기도를 했어요. 웅덩이와 젖은 바지와 형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베개 밑을 더듬었어요. '형아, 내 돌 어디 갔지?' '베개가 깔고 앉았어.'

돌을 꺼내자 베개가 옆으로 툭 기울었어요. 지성이는 그 베개를 다시 가운데 놓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베개니까, 잘 눕혀 주고 싶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좋았던 일과 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함께 말해 보세요. 하루를 채점하기보다 관계를 돌보는 기도로 마칩니다.

기도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것

그림이 막아 버린 느루 길



지성이는 갖고 싶은 것을 종이에 그렸어요. 빨간 버스, 큰 복숭아, 미끄럼틀 하나 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더니 버스 바퀴가 삐죽 나왔어요. '햇님께 보여 드릴 거야.'

우성이도 옆에서 그렸어요. 아주아주 빠른 무당벌레 차예요. 둘은 그림을 풀밭에 나란히 펼쳤어요. 버스, 복숭아, 미끄럼틀, 무당벌레 차. 풀밭이 금방 꽉 찼어요.

그때 느루가 풀잎 사이에서 나왔어요. 종이 앞에서 멈추더니 더듬이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여기 나는 어디로 지나가?' 그림이 느루 길을 다 막고 있었어요.

지성이는 그림을 햇빛 드는 쪽으로 옮겼어요. '햇님, 빨간 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복숭아도요. 느루 길도요.' 말하다 말고 지성이가 형을 보았어요. '형아, 느루 길은 우리가 만들어도 돼?'

둘은 돌을 하나씩 옮겼어요. 우성이는 큰 돌, 지성이는 작은 돌. 풀밭에 가느다란 길이 하나 났어요. 느루는 그 길로 천천히, 천천히 지나갔어요. 버스보다 훨씬 느렸지만 가고 싶은 쪽으로 갔어요.

지성이는 그림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다 돌길을 보고 주머니를 벌려 보였어요. '형아, 이건 안 들어가.' 우성이가 웃었어요. 느루는 길 끝에서 벌써 젖은 잎을 먹고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바라는 것을 솔직히 말하되 기도를 물건을 받는 주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도 찾아봅니다.

2부

같이 사는 법을 배워요

9~16편

9 / 70

씨앗을 뒤집어 보지 마

자꾸만 파 보는 씨앗



지난번 이든이 준 씨앗 곁에 새 씨앗을 심었어요. 지성이는 물을 주고, 흙을 덮고, 다시 파 보았어요. 아직 씨앗이에요. 한 번 더 덮었다가 한 번 더 파 보았어요.

우성이가 흙 묻은 씨앗을 손바닥에 받았어요. '이러다 집이 없어지겠어.' 지성이가 물었어요. '씨앗 집?' 우성이는 작은 구멍을 가리켰어요. 지성이는 그제야 흙을 천천히 도로 넣었어요.

물뿌리개를 들고 온 보리가 발을 멈췄어요. '여기는 벌써 젖었네. 오늘은 더 안 줘도 되겠다.' 지성이는 물을 더 주면 더 빨리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물뿌리개를 내려놓자 두 손이 허전했어요.

지성이는 허전한 손을 모았어요. '햇님, 제가 씨앗을 자꾸 꺼내 봤어요. 씨앗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고는 나뭇가지를 꽂아 작은 울타리를 세웠어요. 친구들이 밟지 않도록요.

그날은 싹 대신 울타리가 생겼어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지성이는 흙을 파지 않고 곁에 앉았어요. 우성이가 그 옆에 앉으니 울타리보다 큰 그늘이 둘 생겼어요.

며칠 뒤 흙 위로 아주 작은 초록이 올라왔어요. 지성이가 모리를 불렀어요. '나 오늘도 안 꺼냈어!' 모리가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았어요. '하나, 잎이 둘. 둘, 줄기가 똑바로. 셋, 흙이 촉촉해. 잘 나왔네.' 지성이는 초록 잎에 대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안녕. 이제 안 꺼낼게.'

함께 읽는 어른께

정성은 같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돌보고 자라는 생명의 속도를 살펴봅니다.

10 / 70

가시는 먼저 인사했어

팔을 벌렸더니 가시가 콕



작은 고슴도치 밤비가 마당에 왔어요. 지성이는 반가워서 두 팔을 벌렸어요. 밤비가 한 발 물러났고, 지성이 손끝에 가시가 살짝 닿았어요. '앗.' 둘 다 그만 굳어 버렸어요.

모리는 두꺼운 천을 가져왔어요. 보리는 솜을 가져왔어요. 우성이는 멋진 갑옷을 만들어 주자고 했어요. 밤비 앞에 물건이 수북이 쌓였어요. 밤비 얼굴이 점점 안 보였어요.

지성이는 솜 너머로 물었어요. '밤비는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아?' 밤비가 코끝을 내밀었어요. '앞발을 대면 돼. 아주 살짝.' 지성이는 이번에는 팔을 크게 벌리지 않았어요.

작은 앞발과 작은 손바닥이 만났어요. 가시 없는 쪽은 보드라웠어요. 밤비는 천 위에 앉고 싶다고 했어요. 모리가 만들려던 갑옷은 그 자리에서 방석이 되었어요.

간식 전에 지성이는 두 손을 모았어요. '햇님, 밤비를 만나서 고마워요. 제가 하고 싶은 인사 말고 밤비가 좋은 인사도 알았어요.' 밤비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보리가 솜을 치우는데 피오가 그 안에서 나왔어요. 머리에 솜이 둥글게 붙어 있었어요. '나는 벌써 갑옷 입었어.' 밤비가 앞발을 내밀었어요. 둘의 첫 인사는 아주 가벼웠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안고 싶다는 마음과 상대가 편한 접촉을 구별합니다. 새 인물 밤비는 이번 원고의 제안 인물입니다.

형아는 다 아는 줄 알았지

둥실이 가방끈이 풀렸어요



강 건너에서 작은 해달 둥실이가 왔어요. 둥실이는 밤갈색이고, 목소리는 물방울처럼 작았어요. 파란 해달이 옆에서 소개했어요. '우리 먼 친척이야.' 지성이는 가슴을 쭉 폈어요.

'나 따라와. 내가 형아야.' 지성이는 연두집 계단 첫 칸에 올라섰어요. 둥실이 가방끈이 풀렸어요. 지성이는 끈 두 끝을 잡았어요. 묶는 모양은 알겠는데 손이 그 모양을 몰랐어요.

둥실이가 기다렸어요. 지성이는 끈을 당겼다가 풀었어요. '이건…… 특별한 매듭이야.' 그때 우성이가 다가왔어요. 지성이는 끈을 숨기려다가 그냥 내밀었어요. '이거 좀 알려 줘.'

우성이는 천천히 보여 줬어요. 둥실이도 앞발 하나를 보탰어요. 세 손이 바빠서 끈이 한 번 더 엉켰어요. 이번에는 셋이 같이 풀었어요. 가방은 마침내 둥실이 등에 놓였어요.

마당을 건너기 전 지성이는 빛 드는 계단에 잠깐 섰어요. '햇님, 저 오늘 형아 해요.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할게요.' 우성이는 못 들은 척하면서 옆에서 걸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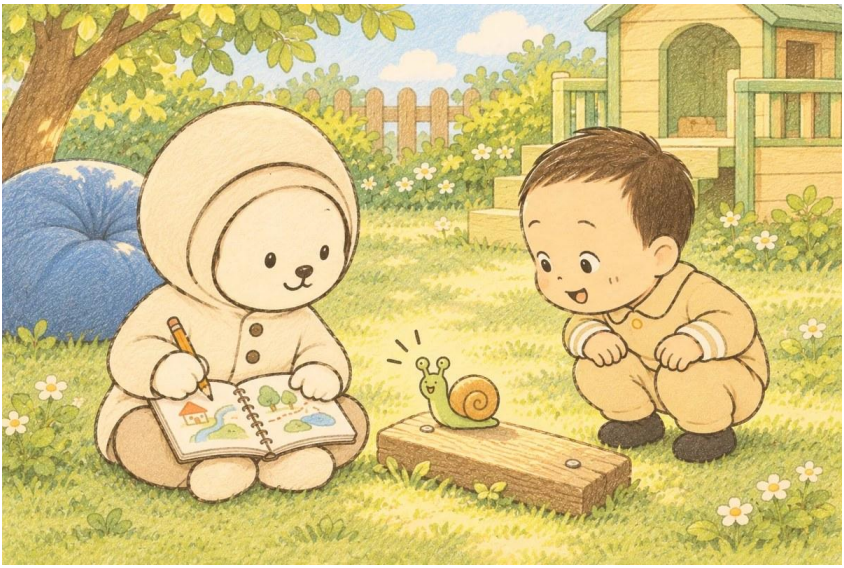
둥실이가 미끄럼틀을 가리켰어요. '저건 뭐야?' 지성이는 이번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려가는 데야.' 그리고 덧붙였어요. '올라가는 데는 저쪽. 그건 내가 알아.'

함께 읽는 어른께

돌보는 역할이 생겨도 혼자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둥실이는 기존 해달의 이름 변경이 아닌 새 인물 제안입니다.

모리 수첩의 빈칸

느루 자리를 모르는 모리



모리는 정원에 올 친구들에게 줄 안내 수첩을 만들었어요. '하나, 빠른 길. 둘, 그늘진 길. 셋, 물 마시는 곳.' 마지막 칸에는 느루가 좋아하는 자리를 적으려 했어요. '그건 내가 알지.'

모리는 축축한 잎을 가리켰어요. 느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 밑을 가리켜도 아니었어요. 수첩이 점점 모리 무릎 쪽으로 기울었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느루한테 물어봤어?'

모리는 연필을 멈췄어요. '어디가 좋아?' 느루는 느리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햇빛 조금 있는 자리. 등 말리고 싶어.' 모리는 수첩의 빈칸을 손으로 쓸었어요.

셋은 잎과 돌 사이에 마른 나무 조각을 놓았어요. 느루가 올라가 보았어요. '이만큼이면 돼.' 모리는 느루 말을 그대로 적고, 옆에 나무 조각을 그렸어요. 느루 등 위에는 햇빛도 조금 그려 넣었어요.

저녁에 모리는 수첩을 덮고 두 손을 모았어요. '달님, 오늘은 느루가 저한테 알려 줬어요. 저는 몰랐어요.' 말하고 나서 모리는 조금 웃었어요. 모르는 걸 하나 알게 된 날은 연필 끝이 가벼웠어요.

다음 날 수첩에는 빈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성이가 물었어요. '왜 비워 놨어?' 모리가 대답했어요. '넷, 내일 느루한테 물어보기.' 느루는 벌써 다른 나무 조각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와 배움에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담았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미리 정해 주지 않고 묻습니다.

빈백을 빌려 드립니다

쿠마타 낮잠을 지키는 두 문지기



쿠마타는 아침부터 마당의 떨어진 가지를 모았어요. 빗물 고인 그릇도 비웠어요. 점심이 되자 파란 빈백에 길게 누웠어요. 이번 낮잠은 아주 길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쿠마타를 불렀어요. 작은 컵 어디 있느냐고, 여분 담요를 봤느냐고, 놀이터는 어느 쪽이냐고요. 쿠마타는 눈을 한 번씩 뜨고 가리켜 주었어요.

우성이가 컵 바구니를 문 앞에 꺼냈어요. 지성이는 담요를 낮은 선반에 두었어요. 둘은 마당 입구에 나란히 앉았어요. 찾아오는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길을 알려 주었어요.

지성이가 형 소매를 잡았어요. '햇님께 쿠마타 잘 자게 해 달라고 할까?' 둘은 손을 모으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다음에는 자기들 목소리도 작게 두었어요.

쿠마타가 눈을 떴을 때 마당은 그대로였어요. 컵은 제자리에 있었고, 친구들은 놀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는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쿠마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 빈백이 참 조용했네.' 쿠마타가 말했어요. 지성이는 빈백을 톡 쳤어요. '우리가 해 줬어.' 우성이가 웃었어요. '빈백 말고 마당을.' 쿠마타는 둘 사이에 앉을 틈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누군가 쉬도록 대신 맡아 주는 것도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쉼을 게으름이나 신앙 부족으로 읽히게 하지 않습니다.

14 / 70

미안해 다음에 할 말

찢어진 종이연에 풀칠하기



지성이가 두두의 종이연을 잡아당겼어요. 바람에 날아갈까 봐 그랬는데, 손잡이 옆이 쭉 찢어졌어요. 두두는 연을 끌어안고 돌아앉았어요. 지성이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성이가 둘 사이에 섰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놀자.' 두두는 고개를 더 돌렸어요. 우성이는 손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어요.

지성이는 풀과 종이를 가져왔어요. '고쳐도 돼?' 두두는 한참 있다가 연 끝을 내밀었어요. 둘은 찢어진 자리에 종이를 댔어요. 두두 표정은 아직 화난 얼굴이었어요.

우성이는 옆에서 연 꼬리를 잡아 주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속으로 말했어요. '햇님, 두두가 아직 화났어요. 저는 빨리 놀고 싶어요.' 우성이는 꼬리를 꼭 잡고 발끝만 꼼지락거렸어요.

풀이 마르자 두두가 손잡이를 들었어요. 지성이는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렸어요. 두두는 연을 한 번 날려 본 뒤에야 손잡이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여기 잡아.'

지성이는 조심조심 잡았어요. 우성이가 꼬리를 놓으려 하자 두두가 외쳤어요. '아직!' 우성이는 얼른 다시 잡았어요. 조금 뒤 연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풀칠한 자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사과한 뒤 상대가 바로 웃거나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칠 일을 하고 상대의 속도를 기다립니다.

15 / 70

보리 몫은 어디 있지

앞치마 밑에서 꼬르륵



보리는 납작한 빵을 구웠어요. 우성이에게 두 장, 지성이에게 한 장, 두두에게 두 장. 피오는 아주 작은 모서리면 된다고 했어요. 바구니가 비자 보리는 부스러기를 모았어요.

우성이가 자기 빵을 보다가 보리 접시를 보았어요. '너는?' 보리는 웃으면서 배 안 고프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앞치마 밑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피오가 그쪽을 쳐다보았어요.

지성이는 자기 빵을 반으로 갈랐어요. 우성이는 한 장을 도로 바구니에 넣었어요. 두두는 세다가 헷갈려서 자기 접시째 가운데 밀었어요. 보리가 두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많이는 못 먹어.'

‘그럼 얼마 먹고 싶어?’ 우성이가 물었어요. 보리는 손가락 두 개를 폈다가 하나를 접었어요. ‘한 장하고, 조금.’ 지성이는 그 ‘조금’을 자기 접시에서 골랐어요.

먹기 전에 우성이는 보리를 한 번 더 보았어요. ‘햇님, 저희 빵도, 보리 빵도 고마워요. 다음에는 보리 몫도 먼저 물어볼게요.’ 보리는 이번엔 자기 빵을 두 손으로 들었어요.

피오가 빵 모서리를 다 먹고 보리 앞에 섰어요. ‘조금 남았어?’ 보리가 아주 작은 조각을 떼었어요. 이번에는 떼기 전에 자기 것도 한 입 먹었어요. 피오가 그 한 입을 응원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나눔은 자기 몫을 없애는 시합이 아닙니다. 늘 주는 사람의 필요를 묻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장면도 살립니다.

아무도 안 보는 문고리

그네처럼 매달린 문고리



연두집 문고리가 달랑거렸어요. 우성이는 아침에 그걸 그네처럼 잡고 매달렸어요. 지금은 손잡이 아래 나사가 하나 비어 있어요. 두두는 바람이 그랬나 보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바람 부는 쪽을 보았어요. 바람은 대답하지 않고 지성이 머리카락만 날렸어요. 지성이는 자기가 안 그랬다고도, 형아가 그랬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밀어 보았어요.

우성이는 문 앞에 혼자 남았어요. 햇빛이 나사 구멍까지 들어왔어요. '햇님, 바람이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우성이는 문고리를 받치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했어요.'

모리에게 가서 나사 얘기를 했어요. 모리는 누가 보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작은 상자에서 맞는 나사를 찾아 주었어요. 우성이는 도구를 빌려 모리 곁에서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다시 딸깍 닫혔어요. 지성이가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형을 보았어요. 우성이는 손잡이 아래를 가리켰어요. '여긴 그네 아닌 거 알지?' 지성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네는 저기잖아.' 지성이가 놀이터를 가리켰어요. 우성이는 도구를 반납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매달려도 되는 곳에 매달렸어요. 문은 하루 종일 제자리에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보상이나 벌을 앞세우기보다 스스로 사실을 말하고 손상한 것을 고치는 책임을 보여 줍니다.

3부

뇨끼의 고향으로 가요

17~24편

돌아올 자리도 챙겨

빈백 옆에 꽂은 종이 깃발



뇨끼 고향에 가는 날이 왔어요. 우성이는 신발을 신고 가방도 멨어요. 그런데 다시 방으로 뛰어갔어요. 돌아와서 꽂을 종이 깃발을 두고 왔거든요. 지성이는 문부터 챙겼어요. 잘 닫히나 두 번 밀어 보았어요.

떠나기 전에 친구들이 둥글게 앉았어요. 우성이가 말했어요. '햇님, 달님, 뇨끼가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서로 잘 보면서 다녀올게요.' 뇨끼는 긴 목을 낮추어 함께 앉았어요.

‘돌아오면 뭐 할 거야?’ 지성이가 물었어요. 뇨끼는 대답을 생각했어요. 해달이 먼저 ‘돌 자랑’이라고 했어요. 보리는 ‘감자 수프’라고 했어요. 뇨끼는 그제야 둘 다 하고 싶다고 했어요.

쿠마타는 마당에 남았어요. 떠나기 전에 지성이는 종이 깃발을 빈백 옆에 꽂았어요. ‘이거 보면 우리 자리 잊지 마.’ 쿠마타는 한쪽 눈을 떴어요. ‘자리보다 너희를 기억하는 게 쉽겠는데.’

길모퉁이에서 우성이는 한 번 돌아보았어요. 깃발은 안 보였어요. 쿠마타의 갈색 등이 조금 보였어요. 지성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뇨끼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물었어요.

뇨끼가 산 쪽을 가리켰어요. 긴 목으로 가리키니 아주 잘 보였어요. 우성이는 신이 나서 앞장섰다가 곧 옆으로 비켜섰어요. ‘오늘은 네 고향이니까, 네가 먼저.’ 뇨끼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여행 전 서로의 바람과 준비를 확인하고 기도합니다. 뇨끼의 고향 여행은 이번 이야기에서 이어 쓴 제안입니다.

수통 하나가 더 필요해

산에 가져간 '산'



보리 가방은 한 발 갈 때마다 쿵 했어요. 우성이는 짐을 줄여 주겠다고 나섰어요. 수통 하나가 나왔어요. '이건 또 있어.' 우성이는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보리가 가방끈을 풀었어요. '그건 느루 물이야. 큰 수통 입구에는 느루가 못 들어가.' 작은 수통 뚜껑은 얕고 넓었어요. 느루는 그 뚜껑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우성이는 수통을 도로 넣었어요. 대신 자기가 넣은 커다란 장난감 돌을 꺼냈어요. 이름은 산이었어요. 산에 가니까 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성이가 진짜 산을 쳐다보았어요.

모리가 짐을 다시 쌌어요. '하나, 무거운 건 뇨끼 등에. 둘, 물은 옆 주머니에. 셋, 간식은 맨 위에.' 넓은 천 주머니가 뇨끼 등에 판판하게 놓였어요. 보리 가방은 이제 쿵 하지 않았어요.

언덕 그늘에서 다 같이 물을 마셨어요. 느루는 자기 뚜껑으로 갔어요. 보리는 그제야 두 손이 비었어요. 느루가 뚜껑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보리도 그늘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성이는 오는 길에 작은 돌을 다섯 개 주웠어요. 하나씩 늘어놓고 말했어요. '산의 아기들이야.' 우성이는 자기 산을 내려다봤어요. 큰 산과 아기 산들이 그늘 아래 나란히 쉬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나눔을 위해 물이나 자기 필요를 무작정 줄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짐을 나눕니다.

19 / 70

지도가 접힌 쪽

두 겹으로 접혀 있던 지도



길이 두 갈래가 되었어요. 우성이는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콩이는 왼쪽이라고 했어요. 두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왔더라?' 길은 두 갈래인데 말은 세 갈래가 되었어요.

지성이는 지도 아래로 손을 넣었어요. 종이가 두 겹이었어요. '여기 아직 접혔어.' 콩이는 안경을 올렸어요. 급히 펴느라 뒷장을 다 펴지 않았던 거예요.

바람이 종이를 뒤집었어요. 우성이가 돌로 누르려 하자 해달이 깜짝 놀랐어요. '그 돌 자고 있어!' 이번에는 모두 종이 한 모서리씩 잡았어요. 콩이는 가운데를 폈어요.

접힌 자리 안에 작은 다리 그림이 있었어요. 다리 옆에는 쉬어 가는 넓은 돌도 있었어요. 우성이는 다리부터 찾으러 뛰어가려다 멈췄어요. 느루가 지도 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내가 오른쪽이라고 했지?' 우성이가 물었어요. 콩이가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어요. '다리까지는 왼쪽.' 우성이는 잠깐 입을 벌렸다가 웃었어요. '그러면 다리부터 보자.'

다리는 정말 왼쪽에 있었어요. 두두가 지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또 접힌 데 없어?' 지성이가 자기 소매 끝을 펴 보았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톡 떨어졌어요. '여기도 접혀 있었네.'

함께 읽는 어른께

처음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함께 확인합니다. 모르는 길에서는 서둘러 따라가기보다 멈추어 믿을 만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0 / 70

샘 앞에서 손을 펴 봐

막대기를 든 우성이와 막힌 샘



샘터에 왔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젖은 낙엽만 잔뜩 쌓여 있었어요. 우성이는 물통을 흔들어 보았어요. 찰랑, 조금 남았어요. 더운 길을 걸어온 친구들은 목이 말랐어요.

우성이는 막대기를 잡았어요. 바위를 쿵 치면 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팔을 들다가 물통을 내려놓은 지성이를 보았어요. '햇님, 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말이 막대기보다 먼저 내려왔어요.

모리가 바위틈을 살폈어요. 젖은 잎이 뭉쳐 물길을 막고 있었어요. 막대기로 밀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우성이는 막대기를 옆에 두고 손가락을 폈어요.

우성이가 잎을 꺼내면 지성이가 바구니에 받았어요. 해달은 물이 옆으로 새지 않게 작은 돌을 놓았어요. 물은 한꺼번에 솟지 않았어요. 졸졸, 자기 길을 찾아 흘렀어요.

보리가 챙겨 온 물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친구들이 바위에 기대 쉬는 동안 우성이는 손바닥에 붙은 잎을 들여다보았어요. 잎맥이 꼭 작은 길 같았어요.

두두가 막대기를 주워 들었어요. '이건 어디에 쓰지?' 지성이가 대답했어요. '걸을 때.' 두두는 지팡이처럼 짚어 보았어요. 아까보다 훨씬 좋은 소리가 났어요. 톡, 톡.

함께 읽는 어른께

막힌 샘은 이번 동화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반석 사건을 재현하거나 말씀 원문을 인용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자국이 크면 좋을까

공룡 발자국 안에 쏙



뇨끼 고향의 젖은 흙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있었어요. 우성이는 두 발을 다 넣어도 남았어요. 지성이는 그 안에 앉아 보았어요. 작은 연못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멀리서 뇨끼 친구가 걸어왔어요. 뇨끼보다 목이 더 길었어요. 우성이는 자기도 커지고 싶다고 했어요. 지성이는 우성이 손을 잡고 발끝을 세웠어요. 둘이 같이 커지는 중이었어요.

바람에 작은 꽃씨가 날아왔어요. 큰 공룡 친구는 발을 떼려다가 멈췄어요. 발톱 옆에 씨앗이 걸려 있었어요. 우성이가 허리를 숙여 씨앗을 집었어요. 지성이는 작은 잎으로 받았어요.

큰 공룡은 몸을 낮추어 둘을 보았어요. '나는 저걸 못 봤네.' 우성이는 씨앗을 안전한 흙 쪽에 내려놓았어요. 지성이는 발끝을 세우느라 아팠던 발바닥을 도로 땅에 붙였어요.

뇨끼 친구들이 옆에 앉았어요. 큰 발과 작은 발이 둥글게 모였어요. 지성이는 고개를 한참 들었다가 우성이 어깨에 기대었어요. '형아 크기는 여기 보기 좋아.'

돌아가는 길에는 각자 자기 발자국을 남겼어요. 지성이는 제 발자국을 한 번 더 밟아 보았어요. 이번엔 딱 맞았어요. 두 발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키나 능력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몸이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도리의 남는 쪽

뇨끼 목에 감은 짧은 목도리



산골 저녁은 서늘했어요. 지성이가 뇨끼 목에 목도리를 둘러 주었어요. 목도리는 목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그래도 따뜻해.' 뇨끼가 말했지만 지성이는 자꾸 끝을 잡아당겼어요.

뇨끼의 고향 친구가 노란 천을 가져왔어요. 모리가 두 천을 이었어요. '하나, 끝을 겹치고. 둘, 꼭꼭 묶고. 셋, 당겨 보기.' 이번에는 목도리가 넉넉했어요. 지성이는 모리 손을 빌려 파란 쪽 끝에 작은 매듭을 지었어요. '이건 연두집 표시.'

고향 친구도 노란 쪽 끝에 매듭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 산 표시.' 뇨끼는 두 매듭을 다 보고 싶었어요.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저쪽

매듭이 등 뒤로 가고, 저쪽으로 돌리면 이쪽 매듭이 등 뒤로 갔어요. 뇨끼 목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우성이가 뇨끼 옆으로 쪼르르 돌아갔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되지!' 친구들이 뇨끼 둘레에 동그랗게 섰어요. 연두집 친구도 앞에, 고향 친구도 앞에. 뇨끼는 이제 고개를 안 돌려도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뇨끼는 목도리를 풀밭에 길게 펴 놓았어요. 고향 친구는 산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이는 빈백에서 자고 있을 쿠마타 이야기를 했어요. 뇨끼는 양쪽 이야기에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보니 목도리 한가운데에 낙엽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두두가 물었어요. '이건 누구 표시야?' 뇨끼가 잎을 후 불었어요. '어젯밤 바람.' 낙엽은 팔랑팔랑 날아가 고향 친구 발 앞에 앉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새로운 곳을 좋아하면 원래 가족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식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관계를 잇는 경험을 담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데려가

밤 골짜기의 삐걱 소리



밤의 골짜기에서는 낮에 못 듣던 소리가 났어요. 지성이는 이불을 코까지 올렸어요. 나뭇가지가 삐걱했어요. 지성이 배도 작게 꾸르륵했어요. 둘 다 누가 내는 소리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우성이는 해달이 돌을 세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달은 자고 있었어요. 우성이도 이불을 조금 올렸어요. 둘은 서로 안 무섭다는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이불 때문에 눈밖에 안 보였어요.

천막 밖에서 뇨끼가 잎을 털었어요. '나야.' 우성이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지성이는 손을 내밀려다 다시 이불 속으로 넣었어요. 작은 말 하나가 먼저 나왔어요.

‘달님, 저 지금 좀 무서워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알아 주세요.’ 지성이 목소리는 이불 안에서 작았어요. 우성이가 귀를 가까이 댔어요. ‘나도 조금.’

둘은 손을 잡았어요. 모리가 가까운 천막에서 잘 자라고 말했어요. 뇨끼는 천막 밖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성이는 소리가 날 때마다 누구인지 천천히 물었어요. 어느 소리는 끝내 이름을 못 붙였어요.

아침에는 천막 끈에 매달린 잎이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지성이가 그 잎을 보았어요. ‘너도 밤에 안 잤구나.’ 우성이는 하품을 했어요. 둘의 하품은 오늘 처음으로 아주 컸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두려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며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 뒤 두려움이 즉시 없어져야 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누가 먼저 알까

쿠마타가 구운 납작한 빵



집으로 돌아오는 날, 뇨끼는 고향 친구와 코끝을 가볍게 맞댔어요. 지성이는 목도리 끝을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돌려주었어요. 뇨끼 목에 있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요.

우성이는 자기가 길을 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말한 뒤 콩이 지도를 펼쳤어요. 작은 다리와 샘터를 차례로 짚었어요. 친구들이 보았던 곳이라 손가락이 조금 덜 헤맸어요.

샘터에 이르자 물길 옆 작은 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해달은 제 돌이 아니라 샘터 돌이라고 했어요. 물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잠깐 살핀 뒤에야 다시 걸었어요.

연두집 가까이에서는 빵 냄새가 났어요. 보리는 여행 가방을 열어 봤어요. 자기 빵은 다 먹었어요. '그럼 누가 굽지?' 쿠마타가 멀리서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쿠마타는 둥근 빵 대신 조금 납작한 빵을 내왔어요. 여행하는 동안 굽는 법을 배웠대요. 지성이는 빈백 옆에서 종이 깃발을 찾았어요. 비 맞은 깃발은 바닥에 눕혀 말리고 있었어요.

'잊지 않았네.' 지성이가 말했어요. 쿠마타가 빵을 잘랐어요. '너희 오는 날은 안 잊었어.' 우성이는 한 조각을 집었어요. 자기가 돌아올 곳에서 빵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길 위의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이어 갑니다. 모양이 다른 수고도 알아봅니다.

4부

가을 식탁에 모여요

25~32편

작은 바구니가 먼저 찼어

사과 한 알에 꽉 찬 피오 바구니



사과 줍는 날이에요. 두두가 물었어요. '바구니마다 열 개씩 넣을까?' 우성이는 커다란 바구니를 두 팔로 안았어요. 피오는 조그만 바구니 손잡이를 부리로 물었어요. 사과 한 알을 넣자 피오 바구니는 꽉 찼어요.

두두가 손가락을 접다가 멈췄어요. '아홉 개는 어디 넣어?' 피오가 바구니를 끌었어요. 풀 위로 짧은 자국이 났어요. 우성이는 자기 사과를 얹어 주려다가 도로 가져왔어요. 넣을 데가 없었거든요.

'피오야, 너는 뭐 할래?' 지성이가 물었어요. 피오는 깡충깡충 뛰어가 굴러가는 사과 앞을 막았어요. 나뭇잎 밑에 숨은 사과도

금방 찾았어요. '찾기! 내가!' 두두가 빈 바구니를 들고 뒤를 따랐어요.

느루가 사과 밑에 난 작은 구멍을 살폈어요. 벌레가 있는 사과는 따로 놓았어요. 우성이는 무거운 것을 날랐고 지성이는 떨어진 잎을 털었어요. 어느 바구니에 누가 몇 개 넣었는지는 이제 셀 수 없었어요.

보리가 사과를 씻어 잘랐어요. 먹기 전에 우성이가 손을 모았어요. '햇님, 사과 고마워요. 피오가 찾은 사과예요.' 피오가 가슴을 쭉 폈어요. 느루도 더듬이를 쭉 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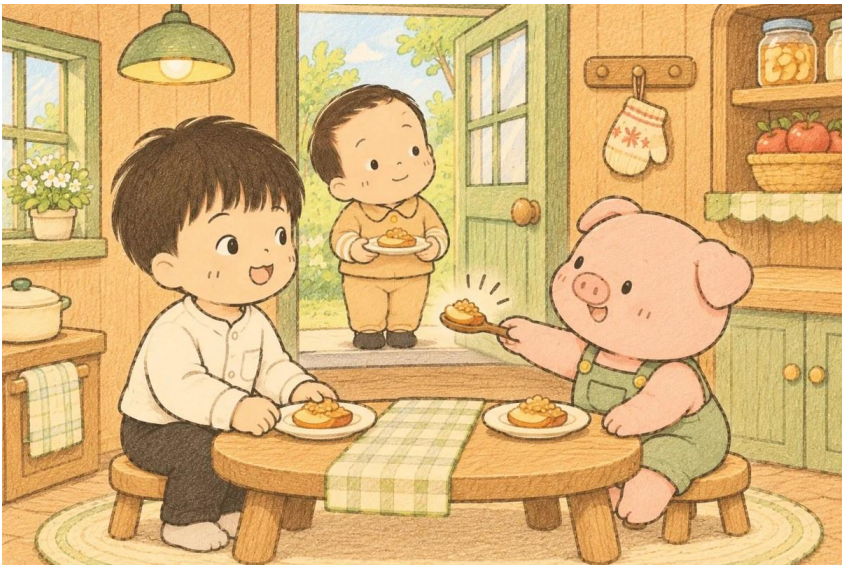
두두는 사과 조각을 나눠 주다가 피오 접시 앞에서 멈췄어요. '피오는 열 개?' 피오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한 개! 배 터져!' 지성이가 제일 작은 조각을 놓아 주었어요. 남은 조각은 모두의 접시로 하나씩 갔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같은 양을 맡겨야만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먹을 몫을 일의 성과에 따라 제한하지 않도록 읽어 주세요.

반쪽을 들고 왔어

나뭇가지에 걸린 두두 장갑



두두는 우성이랑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제 우성이가 두두 장갑을 공처럼 던졌거든요. 장갑은 나뭇가지에 걸렸고, 두두는 하루 종일 손이 시렸어요. 우성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두두 입은 아직 삐죽 나와 있었어요.

오늘 보리가 구운 사과를 주었어요. 우성이는 반을 남겨 작은 접시에 담았어요. 두두의 집 앞에서 접시를 왼손으로 들었다 오른손으로 들었어요. '들어와.' 문 안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사과가 다 식겠어.'

우성이는 접시를 놓았어요. '장갑은 모리랑 찾아서 씻었어. 난 던지는 게 재밌었는데, 너는 하나도 안 재밌었겠다.' 두두는 장갑을 끼고 손을 오므렸다 폈어요. 우성이는 무릎 위에 빈손을 놓았어요.

'오늘도 같이 놀자고 하려고?' '응. 그런데 싫으면 내일 물어볼게.' 두두가 접시를 당겼어요. 한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식기 전에 먹어. 아직 장갑 던지는 놀이는 싫어.' '그건 나도 안 할게.'

지성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나도 반쪽 있어.' 두두는 지성이 접시를 보고, 우성이 접시를 보았어요. '반쪽이랑 반쪽이면…… 한 개?' 지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아 반, 내 거 반.'

두두는 잠깐 생각하더니 사과를 또 나눴어요. '그럼 셋이 먹자. 숟가락은 던지지 말고.' 우성이가 숟가락을 꼭 잡았어요. 지성이도 따라 꼭 잡았어요. 셋은 아주 조심조심, 조금 웃기게 사과를 먹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용서는 상대에게 곧장 웃거나 함께 놀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사과한 뒤 바꿀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대답이 늦게 도착해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려



언덕에서 온 작은 염소 구름이는 말을 천천히 했어요. '나는……' 하고 나면 지성이가 먼저 물었어요. '물 마실래? 미끄럼틀 탈래? 빵 먹을래?' 구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우성이가 빵을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두두는 구름이 귀 옆에서 다시 물었어요. '빵이 싫어?' 구름이의 귀가 뒤로 갔어요. 모리가 두두를 살짝 옆으로 불렀어요. 그사이 구름이는 연두집 계단에 가만히 앉았어요. 우성이도 한 칸 아래 앉았어요.

지성이가 입을 열려다가 손으로 입술을 만졌어요. 조금 지나 구름이가 말했어요. '나는…… 풀 있는 데가 좋아.' 우성이는 마당 끝을 가리켰어요. 이번에는 말 대신 구름이 얼굴을 보았어요. 구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은 풀밭으로 갔어요. 구름이는 긴 잎 사이에서 보라색 꽃 하나를 찾았어요. 이름을 묻자 한참 뒤에 '몰라' 했어요. 지성이가 웃었어요. '나도.' 그다음에는 아무도 말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우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아까는 구름이 말을 못 들었습니다. 내일은 기다리고 싶어요.' 지성이는 옆에서 제 말을 보탰어요. '그런데 나는 말이 자꾸 먼저 나와요.'

다음 날 지성이가 구름이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디 갈까?' 구름이가 생각하는 동안 지성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구름이가 대답했어요. '어제…… 거기.' 지성이가 손을 떼자 기다렸던 말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나도나도나도!'

함께 읽는 어른께

구름이는 새 등장인물 제안입니다. 조용함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 다루지 않고, 대답할 시간을 줍니다.

오늘은 함께 앉는 날

아무도 앉지 않은 방석



오늘은 다 같이 모여 인사드리는 날이었어요. 우성이는 방석을 줄 맞춰 놓고, 지성이는 그 줄을 다시 비뚤게 놓았어요. 두두는 빵을 날랐어요. 보리는 컵을 씻었어요. 다 모였는데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모리가 빈 방석에 먼저 앉았어요. 두두가 빵 바구니를 들고 물었어요. '이제 먹어?' 우성이가 방석을 밀다 멈췄어요. '아니, 인사 먼저.' 그러고 보니 다들 바빠서 아직 아무도 인사를 못 했어요.

지성이는 비뚤어진 방석에 앉았어요. 우성이도 그 옆에 앉았어요. 빵은 천으로 덮어 두었어요. 모리가 짧게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저희 왔어요. 오늘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을게요.'

보리가 이번 주에 속상했던 일을 말했어요. 빵이 타서 혼자 부엌에서 울었다고요. 우성이는 몰랐어요. 두두도 몰랐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그때 누구 있었어?' '아무도.' 지성이는 자기 방석을 보리 쪽으로 밀었어요.

친구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피오는 한 소절을 자꾸 먼저 불렀고 두두는 마지막을 길게 불렀어요. 맞지 않는 데가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창문 밖 나뭇잎 소리가 들렸어요.

빵을 나눌 때 두두가 물었어요. '다음에 빵 타면 나 불러.' 보리가 눈을 들었어요. '같이 울어 주게?' '탄 데 내가 먹게.' 보리가 웃다가 빵 바구니를 두두 가까이 놓았어요. 오늘 빵에는 탄 데가 없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공동 예배를 준비·기도·나눔·노래·식탁으로 구체화한 창작 장면입니다. 실제 교회 예식 순서나 공식 기도문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29 / 70

등불은 손잡이가 있어

느루 앞을 비추는 작은 전등



해가 짧아졌어요. 우성이가 작은 전등을 켜고 마당을 걸었어요. 동그란 빛이 신발 위를 따라왔어요. 지성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나는 네 발밖에 안 보여.' 우성이는 뒤돌았어요. 빛도 빙글 돌아 지성이 눈에 닿았어요.

'눈 말고 바닥!' 지성이가 눈을 가렸어요. 우성이는 전등을 내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빛이 생겼어요. 느루가 그 가장자리에서 기어왔어요. 긴 그림자가 느루보다 먼저 돌을 넘었어요.

우성이는 전등을 높이 들었어요. 지성이가 느루 앞의 작은 가지를 치웠어요. 셋이 함께 가자 빛의 동그라미도 천천히 갔어요. 두두가 달려오다가 멈췄어요. '이 길은 왜 이렇게 느려?'

'느루랑 가는 길이야.' 두두는 한 번 느루를 보고 멀리 집을 보았어요. 그리고 앞서가서 문을 열었어요. 지성이가 말했어요. '두두는 벌써 도착했네.' 우성이는 아직 전등을 끄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느루가 몸을 길게 폈어요. 우성이는 전등 손잡이를 지성이에게 넘겼어요. '달님, 느루랑 같이 왔어요.' 지성이는 열린 문과 느루를 번갈아 비췄어요. 안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두두가 외쳤어요. '빵 다 식겠다!' 느루가 멈췄어요. 두두는 얼른 덧붙였어요. '느루 건 안 식었어. 내가 덮어 놨어.' 우성이가 전등을 껐어요. 이번에는 창문에서 나온 빛이 발밑에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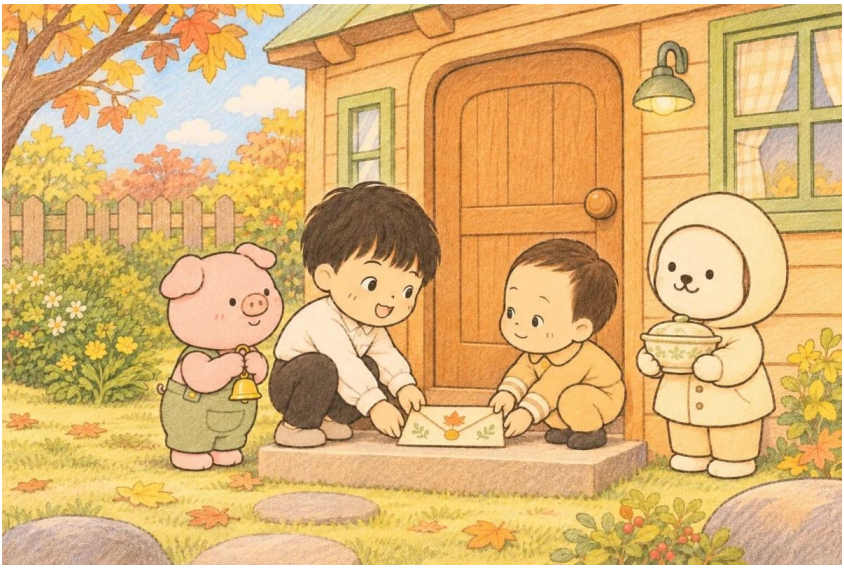
함께 읽는 어른께

전등은 불꽃 없는 작은 전기등입니다. 봉사는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길을 함께 살피는 일로 그립니다.

30 / 70

문 앞에 놓고 갈게

문 앞에 두고 온 웃는 빵 그림



아침인데도 보리네 창문이 닫혀 있었어요. 모리가 문 앞에 작은 종을 내려놓았어요. '보리가 아파서 자고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지성이는 손에 든 그림을 접지 못했어요. 오늘 꼭 보여 주려고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두두가 문을 두드리려 했어요. 우성이가 소매를 잡았어요. 안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났어요. 셋은 한 발씩 뒤로 물러났어요. 지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햇님, 달님, 보리 옆에 있어 주세요. 많이 안 아프게요.'

두두가 물었어요. '죽 만들까? 지금 만들까?' 모리가 손가락을 하나씩 폈어요. '하나, 따뜻한 물. 둘, 묽은 죽. 셋, 조용히.' 두두는 부엌으로 달려가다가 발소리를 줄였어요. 우성이는 장작을 가지런히 놓고, 지성이는 계단의 젖은 잎을 치웠어요.

지성이는 그림을 봉투에 넣었어요. 우성이가 모리에게 부탁했어요. '답장 안 해도 된다고 써 줘. 빵도 안 구워도 된다고.' 모리가 그대로 적어 주었어요. 지성이는 봉투 위에 웃는 빵을 하나 그렸어요.

오후에 모리가 빈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조금 먹고 다시 잔대.' 지성이가 물었어요. '내 그림은?' '베개 옆에.' 지성이는 문을 한 번 보고 돌아섰어요. 두두도 종을 울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창문이 조금 열렸어요. 보리가 봉투를 흔들었어요. 지성이는 마당에서 두 팔을 흔들었어요. 두두가 뛰어가려다 멈췄어요. 보리가 창문 틈으로 말했어요. '천천히 와. 빵은 아직 없어.' 두두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있어.'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가 진료나 필요한 돌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방문·음식·휴식은 돌보는 사람과 먼저 의논합니다. 회복 시점은 이야기 속 사건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돼

실눈을 뜬 구름이



구름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보리가 그릇을 놓자 모두 잠깐 조용해졌어요. 구름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어요. 지성이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구름이도 따라 감았다가 실눈을 떴어요.

기도가 끝나자 구름이가 물었어요. '왜…… 안 먹었어?' 우성이가 대답했어요. '햇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렸어. 나는 그러고 먹고 싶어서.' 구름이는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나는…… 그런 인사 처음이야.'

두두가 두 손을 맞대 보였어요. '이렇게 해야……' 모리가 두두에게 숟가락을 건넸어요. '구름이는 물어보고 있는 거야.' 두두는

숟가락을 받았어요. 지성이가 말했어요. '우리랑 먹으면 돼. 눈 뜨고 있어도 돼.'

구름이는 천천히 수프를 먹었어요. 보리에게 맛있다고 했어요. 우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보리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두두는 자기 빵이 한쪽만 큰 것을 발견하고도 이번에는 조용히 먹었어요.

돌아갈 때 구름이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다음에…… 고맙다고 할 때…… 나도 한마디 해도 돼?' 지성이가 얼른 끄덕였어요. '무슨 말?' 구름이는 생각했어요. 지성이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기다렸어요.

구름이가 마침내 말했어요. '다음에 생각할래.' 지성이가 웃었어요. 우성이가 문을 잡아 주었어요. 구름이는 풀밭 길로 내려갔어요. 두두가 뒤에서 불렀어요. '그런데 수프는 다음에도 맛있을 거야!'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에 참여하거나 몸짓을 따라 해야 환대받는다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믿는 이유는 형제 자신의 말로 설명합니다.

32 / 70

아직 못 만난 친구

사과 세 개, 손님은 자꾸 늘고



이든이 찾아온 날, 남은 사과는 세 개였어요. 지성이가 하나씩 놓았어요. 이든 하나, 형아 하나, 지성이 하나. 보리가 빈 접시를 들고 오자 지성이는 사과를 도로 모았어요. 두두도 들어왔어요. 다시 모았어요.

보리가 칼로 사과를 잘랐어요. 작은 조각이 접시를 채웠어요. 지성이는 이번에는 접시를 세지 않았어요. 문 쪽을 보았어요. 또 누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요. 이든이 조각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속에 갈색 씨가 있었어요.

우성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마당 끝에 지난번에 심은 작은 사과나무가 서 있었어요. 지성이는 사과 조각 하나를 나무 앞에 놓으려 했어요. '나무도 먹으라고?' 이든이 웃었어요. '나무는 물이 좋대. 이건 우리가 먹자.'

셋은 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이든은 사과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고 했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그때도 올 거야?'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게. 열리기 전에도.'

식탁으로 돌아와 이든이 손을 모았어요. '햇님, 같이 먹는 친구들 고마워요. 사과가 열리면 아직 못 만난 친구도 부를게요.' 우성이는 일어나서 창가에 접시를 하나 더 놓았어요.

두두가 그 접시를 가져오려다 멈췄어요. '아직 못 만난 친구 거야?' 우성이가 말했어요. '지금 오면 여기 앉으라고.' 그때 피오가 창문 아래서 불렀어요. '나 왔어!' 지성이가 깔깔 웃었어요. '너는 만났는데!'

함께 읽는 어른께

기존 씨앗의 종류를 사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나무는 나중에 따로 심은 나무입니다. 이든은 기존 원고의 앞치마 두른 사슴입니다.

5부

겨울을 지나 다시 문을 열어요

33~40편

33 / 70

시계보다 먼저 온 친구

담이 시계와 늦게 전한 약속



작은 부엉이 담이가 고친 시계를 가져왔어요. 우성이는 긴 바늘이 꼭대기에 오면 놀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두두는 벌써 출발선에 섰어요. 지성이가 문을 열어 보았어요. 느루는 아직 안 왔어요.

긴 바늘이 꼭대기에 닿았어요. 두두가 한 발을 내밀었어요. 지성이는 문을 잡은 채였어요. '약속은 약속이잖아.' 두두가 말했어요. 우성이는 시계를 보았어요. 어제 느루에게 이 시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느루는 우리가 정한 걸 몰라.' 우성이가 외투를 입었어요. 두두는 출발선에서 발을 뺐어요. 셋은 느루네 낮은 문으로 갔어요. 느루는

잎 아래에서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내일 만나자는 어제 편지였어요.

우성이는 방금 정한 약속을 말하고 늦게 알려 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느루는 자기 속도로 가면 늦을 거라고 했어요. 두두가 물었어요. '그럼 출발선을 여기로 옮길까?' 지성이는 바닥에 나뭇가지를 놓았어요.

담이도 문 앞으로 왔어요. 조용히 서 있던 담이에게 지성이가 물었어요. '시계도 화났어?' 담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계는 가고 있어.' 정말 초침이 가고 있었어요. 놀이를 시작해도, 잠깐 기다려도요.

그날 첫 경주는 느루네 문에서 연두집까지였어요. 두두는 뒤로 걷다가 돌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느루는 그사이 두두를 지나쳤어요. 지성이가 소리쳤어요. '느루가 두두보다 빨라!' 두두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시계가 고장 났나 봐.'

함께 읽는 어른께

담이는 새 등장인물 제안입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약속이 상대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살핍니다. 느루를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34 / 70

달빛 쪽에 앉아

창가에 앉은 달빛과 둥실이 그림



둥실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지성이는 낮은 계단을 두 번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둥실이와 하던 놀이였어요. 한 번은 형아가 해 주었지만 똑같지 않았어요. 작은 발이 찍힌 흙도 비에 지워졌어요.

저녁에 지성이가 창가에 앉았어요. 우성이가 옆에 앉자 지성이는 조금 비켜 주었어요. 달빛이 무릎에 걸렸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둥실이도 저 빛 볼까?' 우성이는 창문 밖을 보았어요. '지금은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지성이는 달을 보고 둥실이 이름을 불렀다가, 다시 자기 손을 보았어요. '달님, 둥실이가 보고 싶어요. 둥실이네 집에도 함께해 주세요. 내일은 편지를 그릴래요.' 우성이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모리가 연필과 종이를 놓아 주었어요. 지성이는 계단 두 칸을 그렸어요. 한 칸에는 자기를, 한 칸에는 둥실이를 그렸어요. 얼굴이 너무 커져 계단보다 컸어요. 우성이가 종이 한 장을 더 이어 주었어요.

'언제 또 와?' 지성이가 물었어요. 우성이는 모른다고 했어요. 대신 내일 편지를 보내자고 했어요. 지성이는 둥실이 옆에 작은 가방을 그렸어요. 자기가 매어 주지 못했던 가방 끈도 그렸어요.

잠들기 전 지성이는 편지를 창가에서 책상으로 옮겼어요. 달빛은 빈 의자에 남았어요. 우성이가 이불을 들추자 지성이가 바짝 붙었어요. '형아, 오늘은 여기서 자.' 우성이는 베개를 반듯이 놓다가 조금 비뚤게 놓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일상편 달빛은 하늘부모님의 함께하시는 마음을 비춥니다. 달님을 그리운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 자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 생애노정 특별편과 구분합니다.

아침 인사가 늦었네

양말을 머리에 쓴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벌써 베개 끝에 있었어요. 우성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 인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성이는 양말 한 짝을 머리에 올린 채 자고 있었어요. 우성이가 양말부터 내려 주었어요.

마당에서 보리와 모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어요. 우성이는 창문을 열다 멈췄어요. '너무 늦었나.' 지성이가 눈을 비볐어요. '뭐가?' '햇님께 아침 인사.' 지성이는 창밖을 보았어요. '아직 아침인데.'

두 사람은 이불 위에 앉았어요. 우성이가 말했어요. '햇님, 저 일어났어요. 늦잠 잤어요. 오늘은 모리랑 선반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놀다가 잊지 않게 생각할게요.' 지성이도 말했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양말은 아직이에요.'

우성이는 모리에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모리는 작은 천을 건넸어요. 선반 위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어요. 지성이는 자기 손이 닿는 맨 아래 칸을 닦았어요. 위에는 우성이가 했어요.

정리를 마치자 지성이가 보리를 불렀어요. '오늘 인사는 두 번 했어. 햇님이랑 모리한테.' 보리가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지성이는 얼른 보리에게도 인사했어요. 우성이가 웃었어요. '세 번이다.'

점심때 지성이는 양말을 찾아냈어요. 베개 아래에 두 짝이 나란히 있었어요. '형아, 양말은 일찍 일어났네.' 우성이가 신겨 주려 하자 지성이가 한 짝을 가져갔어요. 오늘은 자기가 해 보겠다고요.

함께 읽는 어른께

늦잠이나 짧은 기도를 믿음의 부족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각을 놓쳐도 자기 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보리와 쿠마타 몫의 담요

빨래를 개다 나란히 졸아 버린 보리와 쿠마타



보리는 지성이가 잠들면 발끝까지 이불을 덮어 주었어요. 쿠마타는 우성이 침대에서 떨어진 베개를 주워 올려 주었어요. 둘은 우성이가 자는 줄 알았지만 우성이는 가끔 알고 있었어요. 아는 날에도 눈을 감고 있었고요.

오늘 저녁에는 보리와 쿠마타가 빨래를 접다가 나란히 졸았어요. 지성이는 웃음을 참다가 우성이 소매를 잡았어요. '보리도 자네.' 우성이는 담요를 가지러 갔어요. 지성이가 따라가 한쪽 끝을 들었어요.

담요는 둘이 들자 바닥에 끌렸어요. 우성이는 가운데를 조금 접었어요. 지성이도 접었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다시 폈어요. 이번에는 아래쪽만 접어 두 사람이 함께 들고 갔어요.

쿠마타가 눈을 떠서 도와주려 했어요. 지성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우리가 해.' 보리가 다리를 조금 모아 주었어요. 우성이는 둘의 무릎을 덮었어요. 쿠마타 발끝은 조금 삐져나왔어요. 지성이는 담요 귀퉁이를 보리 발에 한 번 더 얹었어요.

잠자리에서 우성이가 기도했어요. '달님, 보리랑 쿠마타도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만 덮어 줬는데 오늘은 우리가 덮었어요.' 지성이는 덧붙였어요. '내일은 안 끌고 갈 거예요. 담요가 커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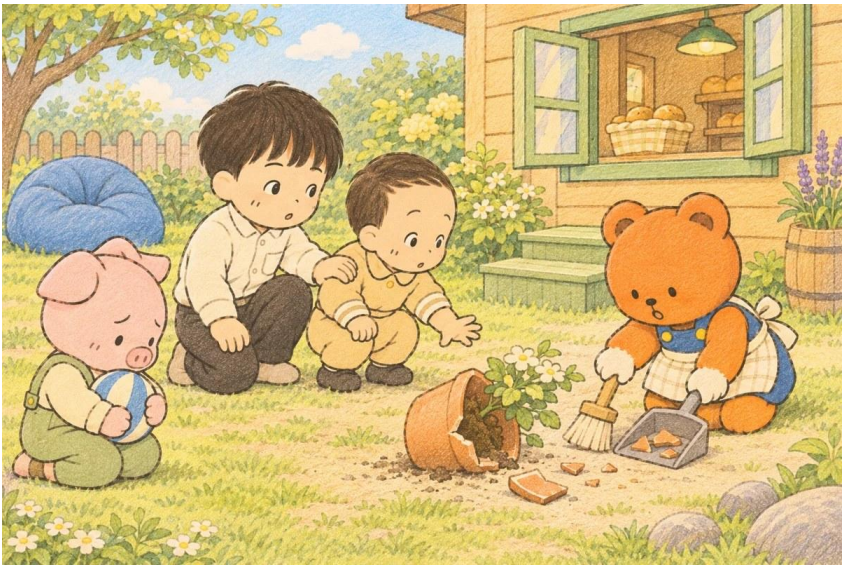
아침에 보니 형제의 이불도 발끝까지 덮여 있었어요. 우성이는 지성이를 보았어요. 지성이는 보리를 보았어요. 보리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개었어요. 담요 하나가 작은 네모가 되어 보리 무릎에 놓였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함께 사는 친구를 돌보는 일은 아이가 큰 친구의 모든 짐을 떠맡는 일이 아닙니다. 늘 돌봐 주던 보리와 쿠마타도 쉬고 도움받는다는 것을 작은 행동으로 보여 줍니다. 대사는 창작입니다.

못 본 척하면 끝날까

두두의 공이 보리 화분을 깨뜨린 날



두두가 공을 세게 찼어요. 공이 보리의 작은 화분을 건드렸어요. 쨍. 테두리 한쪽이 떨어졌어요. 지성이가 문을 보았어요. 보리는 안 나왔어요. 두두가 공을 안고 속삭였어요. '아무도 못 봤어.'

'우리가 봤는데.' 지성이가 말했어요. 두두는 화분을 뒤로 돌렸어요. 깨진 쪽이 안 보였어요. '이제 괜찮지?' 우성이는 보리가 물을 주며 화분을 돌리던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때도 안 보일 수 있을까요.

우성이는 두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같이 말하자.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야.' 두두가 공을 더 꼭 안았어요. 지성이가

떨어진 조각에 손대려 하자 우성이가 멈추게 했어요. '그건 보리가 치우게 두자.'

문 앞에서 우성이가 잠깐 눈을 내렸어요. '햇님, 달님, 두두를 혼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같이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두가 문을 두드렸어요. 첫마디는 작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보리는 화분을 보러 나왔어요. 속상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보리는 날카로운 조각을 직접 치웠고, 화분은 모리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셋은 흙이 쏟아진 자리를 빗자루로 쓸었어요.

두두는 공을 들고 마당 끝으로 갔어요. 지성이가 따라갔어요. '여기서 차면 돼?' 두두가 주변을 천천히 보았어요. 화분도 창문도 없었어요. 우성이가 골대를 놓았어요. 두두는 아주 살짝 찼어요. 공은 골대까지 못 갔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정직을 친구 고발이나 공개 망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깨진 조각은 아이가 직접 만지지 않고, 책임질 행동과 안전한 놀이 공간을 함께 찾습니다.

깨우지 않는 선물

덤불에 매달린 작은 고치



마당 끝 덤불에 작은 고치가 붙어 있었어요. 지성이는 손가락을 가까이 댔다가 멈췄어요. '춥겠다.' 우성이가 자기 목도리를 풀었어요. 나뭇가지에 감으려 하자 느루가 밑에서 불렀어요. '그 가지가 휘고 있어.'

우성이가 목도리를 도로 가져왔어요. 고치는 아주 가벼웠어요. 목도리는 아주 무거웠고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집에 데려갈까?' 모리가 가지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접었어요. '하나, 만지지 않기. 둘, 옮기지 않기. 셋은…… 책한테 물어보자.'

모리가 책을 가져와 그림을 넘겼어요. 형제는 고치 그림이 나올 때마다 '이거!' 하고 짚었어요. 두두는 고치 옆에 큰 간판을 세우려 했어요. 바람이 종이를 펄럭였어요. 두두가 얼른 멀리 옮겼어요.

우성이는 친구들이 달리는 길에 작은 돌을 놓아 조금 비켜 가게 했어요. 고치 둘레를 막지는 않았어요. 지성이는 목도리를 자기 목에 감았어요. '햇님, 여기 작은 아기가 자요. 자꾸 만지고 싶어요. 그래도 손은 주머니에 넣을게요.'

며칠 동안 고치는 그대로였어요. 지성이는 매번 깨우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우성이는 매번 잘했다고 하려다 그냥 옆에 서 주었어요. 둘은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잠깐 보고 놀이하러 갔어요.

눈이 조금 오던 날, 두두가 지성이에게 물었어요. '아직도 자?' 지성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뭘 하는지 몰라.' 두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은 멀찍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 먼저 움직인 것은 두두 코에 내려앉은 눈이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고치의 종이나 부화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견한 생물을 옮기거나 감싸기 전에 알아보고, 관찰만 하는 선택도 돌봄임을 보여 줍니다.

내가 먼저 열어 줄게

눈 오는 날, 문 두드리는 작은 소리



눈 오는 날, 형제는 따뜻한 방에서 작은 집을 만들었어요. 지붕은 빨간 천이었어요. 문은 나무 상자 뚜껑이었고요. 우성이가 지성이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야.' 지성이는 안쪽에 방석 두 개를 놓았어요.

바깥 문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둘은 놀이 중이라 못 들은 척했어요. 다시 소리가 났어요. 지성이가 빨간 지붕 아래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창문 너머에 구름이가 서 있었어요. 귀 끝에 눈이 붙어 있었어요.

우성이는 작은 집 문을 열었다가 진짜 문으로 갔어요. 구름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성이는 방석 하나를 가져다 놓았어요. 구름이는 손에 든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보리가 보낸 빵이었어요. 빵은 아직 따뜻했는데 구름이 발은 꽁꽁 차가웠어요.

우성이는 마른 천을 가져왔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같이 집에 들어올래?' 구름이는 천 지붕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집 문이 너무 낮았어요. 우성이가 지붕을 조금 올렸어요.

놀이를 다시 하기 전 우성이는 마음속 말을 작게 꺼냈어요. '햇님, 달님, 아까 문 소리 들었어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어요.' 지성이는 듣고 있다가 진짜 문 쪽을 보았어요. 또 누가 오나 하고요.

구름이가 작은 집 안에 앉았어요. 머리 위에 있던 천이 뿔 끝에 살짝 걸렸어요. 지성이는 새 지붕이라며 좋아했어요. 우성이는 지붕이 움직일 때마다 받침대를 고쳤어요. 집 안에는 이제 방석이 세 개였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사랑받기 위한 점수 따기로 읽지 않게 해 주세요. 이미 받은 사랑에서 출발해 스스로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선택을 그립니다.

문을 닫기 전에

손수레 밑에 숨은 분홍 발 두 개



봄바람이 들어와 식탁보 한쪽을 들었어요. 지성이가 문을 닫으려는데 우성이가 밖을 보았어요. 마당 끝 손수레 밑에서 신발 두 짝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분홍 발 두 개도요. 지성이가 웃음을 삼켰어요.

‘다 들어왔나?’ 우성이가 일부러 크게 물었어요. 손수레 밑에서 두두가 킥 하고 웃었어요. 피오는 숨으려다 꼬리가 보였어요. 지성이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럼 빵은 우리끼리 먹는다!’ 두두가 먼저 나왔어요.

보리는 빵을 놓았어요. 모리는 식탁보를 눌렀어요. 해달은 느루가 올라올 낮은 받침을 문 옆에 가져왔어요. 쿠마타는 마당 빈백에서 눈을 떴어요. 뇨끼는 창문 밖에서 긴 목을 낮췄어요. 우성이는 창문 쪽 의자를 조금 옮겼어요.

기도할 차례에 우성이는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창으로 들어온 봄볕이 빈 의자 하나까지 닿아 있었어요. '햇님, 저희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집에서 같이 먹어요.' 지성이가 제 말을 보탰어요. '저도요. 제 옆에 자리 있어요.'

기도가 끝난 뒤에도 우성이는 잠깐 가만히 있었어요. 마당에서 컵 놓는 소리, 두두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 지성이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 접시도 가져왔어요.

문을 닫으려다가 이번에는 손수레 밑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성이는 문을 조금 열어 두었어요. 뒤에서 지성이가 불렀어요. '형아, 네 자리가 비었어!' 우성이는 얼른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도 아직 따뜻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문은 이 그림책을 위해 쓴 창작 예문입니다. 일상편의 결말이며 창조완성에 관한 공식 교리 선언이나 역사 특별편의 최종 장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6부

같이 묻고 같이 배워요

41~50편

오리가 둘인데

오리 옷 입고 하나는 뒤뚱, 하나는 쌩



우성이는 오리 옷을 입고 뒤뚱뒤뚱 걸었어요. 지성이는 같은 옷을 입고 쌩 달렸어요. '오리는 그렇게 안 걸어.' 우성이가 불렀어요. 지성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달리는 오리였거든요.

우성이가 동생 앞을 막았어요. 둘의 노란 부리가 콩 부딪쳤어요. 지성이가 후드를 벗었어요. '나는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우성이는 오리 흉내를 그만두면 놀이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해달이 배를 위로 하고 누웠어요. '나는 뒤집힌 오리야.' 우성이가 웃었어요. 지성이도 웃었어요. 해달은 일어나지 않고 물었어요. '누가 내 둥지 좀 옮겨 줘.'

지성이는 달려가 풀잎을 가져왔어요. 우성이는 풀잎을 둥글게 놓았어요. 해달은 가운데로 기어 들어갔어요. 둥지는 몸보다 작아서 꼬리가 밖에 남았어요. 지성이가 그 옆에 앉았어요.

간식 때 지성이가 기도했어요. '햇님, 오늘 오리가 둘이에요. 해달까지 셋이에요. 저는 달리기도 하고 같이 앉기도 했어요.' 우성이는 자기 후드의 부리를 만지다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달릴까?'

지성이가 연두집을 가리켰어요. '물 마시러.' 세 오리가 우르르 갔어요. 제일 뒤의 오리는 누워 있던 시간이 길어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둥지에서는 무사히 나왔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옷과 놀잇감은 같아도 놀이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리 옷은 의상 예시이며 형제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버스가 아직 안 가는 까닭

콩이의 '잠깐'이 버스를 세웠어요



버스에 소풍 짐을 실었어요. 앞에는 돗자리, 뒤에는 바구니였어요. 지성이는 창가에 앉았어요. 우성이는 창문을 닦았어요. 두두는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도착하면 먹을 것부터 꺼냈어요.

콩이가 버스 아래에서 불렀어요. '잠깐.' 아무도 못 들었어요. 콩이는 발판에 올라 다시 불렀어요. 우성이가 걸레를 멈췄어요. 콩이 뒤에는 느루가 잎 위에 앉아 있었어요.

느루가 앉을 자리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두두는 바구니를 옆으로 밀었어요. 이번에는 지나갈 길이 막혔어요. 지성이가 자기

발밑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소풍에 데려갈 돌 세 개가 있었어요.

돌은 마당에 남기로 했어요. 보리가 바구니를 뒤쪽 낮은 칸에 단단히 묶었어요. 콩이는 느루의 얕은 잎 바구니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놓았어요. 느루가 고개를 내밀자 우성이가 물었어요. '거기 괜찮아?'

출발을 기다리며 형제는 두 손을 모았어요. '햇님, 이제 출발해요. 아까 콩이가 '잠깐' 한 거, 못 들을 번했어요.' 우성이는 기도가 끝나도 귀를 쫑긋 세워 두었어요. 느루가 한마디 보탰어요. '바구니 손잡이도 내려 줘.'

지성이가 내려 주었어요. 창밖 마당에는 돌 세 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두두가 손을 흔들었어요. '갔다 올게!' 지성이도 흔들었어요. 아직 버스가 안 가서 돌들은 인사를 아주 오래 받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운전자는 이번 편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차한 버스의 탑승 준비 장면이며 실제 탑승 안전장치는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책을 덮지 말고 잠깐

그림 구석에 떨어진 작은 신발



저녁마다 모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길에서 멈춰 선 사람이 나왔어요. 지성이는 왜 멈췄는지 물었어요. 모리가 다음 장을 넘기려다 손을 멈췄어요. 우성이는 벌써 뒤의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넘어져 있었어?’ 지성이가 물었어요. 모리가 앞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림 구석에 작은 신발이 있었어요. 우성이는 그 신발을 처음 보았어요. 큰 나무만 보느라 지나친 거예요.

우성이는 신발 옆을 짚었어요. ‘여기 사람이 있었네.’ 지성이는 주인공보다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모리는 어디가 궁금한지 더 말해 보라고 했어요. 책은 아직 같은 장이었어요.

다 읽은 뒤 지성이가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저는 오늘 작은 신발을 봤어요. 왜 아무도 안 왔는지 궁금해요.' 모리는 정답을 대신 말해 주지 않았어요. 우성이도 자기가 못 본 그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우성이는 다음 장에서 무엇을 찾을지 정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지성이는 엉뚱한 곳을 볼 테니까요. 둘은 책을 가운데 놓았어요. 모리가 읽으면 손가락 두 개가 서로 다른 데로 갔어요.

잠자리에 들 때 지성이가 물었어요. '내일도 그 신발 있어?' 우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 안에 있으니까.' 지성이는 안심했어요. 못 물어본 말은 내일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말씀과 성경을 함께 읽을 때 질문을 막지 않는 장면 제안입니다. 책 속 이야기는 창작 요약이며 성경 원문 인용이나 특정 본문의 완전한 재현이 아닙니다.

내 노래는 여기쯤

우성이 노래가 '삑' 하고 갈라졌어요



피오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높은 소리가 나뭇잎 위로 올라갔어요. 우성이도 따라 올렸어요. 목 끝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어요. 두두가 두리번거렸어요. '새가 또 왔어? 어디? 두 마리야?'

우성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성이가 옆구리를 톡 쳤지만 안 불렀어요. 노래를 망친 것 같았거든요. 피오는 더 크게 외쳤어요. '같이! 같이 해!' 나뭇잎이 흔들릴 만큼 컸어요.

모리가 손가락 두 개를 폈어요. '하나, 낮게 시작하기. 둘, 피오 소리 밑에 놓기.' 우성이는 머뭇거리다가 한 줄을 불렀어요. 피오의

높은 소리 아래에 자기 소리가 놓였어요. 지성이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시 불렀어요. 햇님 달님께 들려드리는 노래였어요. 같은 높이는 아니었어요. 두두는 조금 늦게 따라왔어요. 우성이는 이번에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마지막 소리가 사라지자 지성이가 물었어요. '형아 목 아파?' '이젠 안 아파.' 피오가 날개를 파닥였어요. '내 거 들렸지? 들렸지!' 모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 끝까지 들렸거든요.

두두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끝나는 데가 안 맞아.' 정말 두두만 아직 한 줄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기다려 주었어요. 이번 노래의 맨 마지막은 두두가 맡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찬양의 실제 가사나 공식 곡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높이와 크기를 신앙의 우열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놓고 갔을까

선물 행주가 먼저 일을 했어요



우성이는 보리에게 새 행주를 주고 싶었어요. 모리와 같이 바느질한 작은 행주였어요. 이름표도 만들었어요. 글자 대신 자기 얼굴을 그린 이름표였어요. 이름표가 행주만큼 컸어요.

부엌에 갔을 때 보리는 없었어요. 지성이는 행주를 물통 옆에 놓았어요. 우성이는 이름표를 붙일 끈을 찾으러 마당으로 갔어요. 그사이 해달이 물을 쏟았어요.

해달은 새 행주를 집어 바닥을 닦았어요. 우성이가 돌아와서 입을 벌렸어요. 선물인데 벌써 젖어 있었어요. 해달이 물통을 세우며 말했어요. '마침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우성이는 젖은 행주를 보았어요. 삐뚤빼뚤한 실 자국에 물이 쏙 배었어요. 부엌에서 쓰라고 만든 건데, 정말 부엌에서 쓰이고 있었어요. 우성이는 해달과 함께 행주를 빨았어요. 이름표는 아직 주머니에 있었어요.

저녁 기도에서 우성이가 말했어요. '달님, 제 행주가 벌써 일했어요. 처음엔 아까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성이는 누가 만들었는지 보리에게도 말해 주자고 했어요. 보리가 씻은 행주를 받아 들었어요.

우성이는 주머니에서 이름표를 꺼냈어요. 보리가 한참 보더니 웃었어요. '이 얼굴은 행주로 닦아 줘야겠네.' 그림 끝에 물이 번져 있었어요. 이름표는 창가에서, 행주는 부엌에서 각자 말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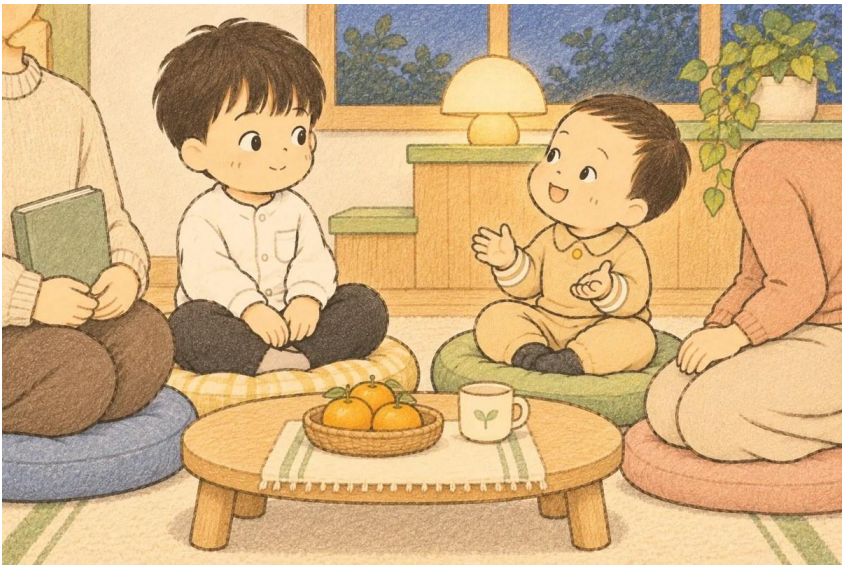
함께 읽는 어른께

선물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쓰는 기쁨도 함께 발견합니다.

46 / 70

오늘 이야기는 지성이 차례

손을 든 채 기다리던 지성이



친구들이 그루터기 식탁에 함께 앉은 저녁이었어요. 보리는 오늘 고마웠던 일을 말했어요. 모리도 말했어요. 우성이는 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어요. 지성이는 손을 들고 있었어요.

우성이가 세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지성이 손은 내려갔어요. 모리가 지성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지성이는 무슨 생각 했어?' 지성이는 잠깐 대답을 못 했어요. 조금 전에 말할 것을 잊었거든요.

우성이는 빨리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리도 모리도 기다렸어요. 지성이가 손바닥을 보다가 말했어요. '나 오늘 느루 봤어.' 그게 전부였어요.

모리가 어디서 보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느루가 잎 뒤에 숨어 있던 일과 지성이가 한참 기다린 일이 나왔어요. 우성이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동생이 자기 없이 보낸 하루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할 때 우성이는 지성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 고맙다고 했어요. 지성이는 느루를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보리와 모리도 한마디씩 보탰어요. 우성이는 남은 손가락을 세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에 지성이가 형을 불렀어요. '형아 세 번째는 뭐였어?' 우성이는 얼른 일어났어요. 동생은 이번엔 두 손을 무릎에 놓았어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연두집 친구들이 저녁에 감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 제안입니다. 아이에게 긴 간증이나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짧은 말에서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싫다는 말까지 들려도

형아 기차에서 내려온 날



우성이가 만든 긴 기차에 지성이가 올라타려 했어요. 나무 상자가 밀려 줄이 풀렸어요. 우성이가 동생을 내려오게 했어요. 지성이가 소리쳤어요. '형아 싫어!'

우성이는 줄을 쥔 채 멈췄어요. 지성이는 방구석으로 갔어요. 정말 싫은 건 내려오라고 한 일이었는데 말은 형아까지 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금방 미안하다고 하기도 싫었어요.

쿠마타가 지성이 옆에 와서 길게 누웠어요. 무슨 말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성이는 무릎을 안고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저 아직 화나요. 형아가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아가 가면 또 싫어요.'

밖에서 우성이가 상자를 옮겼어요. 지성이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문 앞으로 갔어요. '형아, 아직 기차야?' 우성이는 바로 웃지 않았어요. '응. 타는 기차는 아니야.'

지성이는 상자 밖에 앉았어요. '싫다고 해서 미안해. 내려오라는 게 싫었어.' 우성이가 줄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그 말은 아팠어.' 둘은 잠깐 기차 옆에 나란히 있었어요.

우성이가 작은 나무 인형을 건넸어요. 지성이는 인형을 맨 앞 상자에 태웠어요. '얘는 타도 돼?' 우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같이 밀자 기차가 덜컹, 한 칸 나아갔어요. 길게 누워 있던 쿠마타가 첫 손님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감정과 상처 주는 말을 구별합니다. 기도를 억지 사과의 도구로 쓰지 않고, 관계를 다시 말할 틈을 둡니다.

그늘은 누구 거야

끈으로 만든 그늘 집



우성이는 나무 아래에 끈으로 네모를 만들었어요. 오늘 자기 집이었어요. 지성이는 옆에 더 작은 네모를 만들었어요. 두두가 그늘로 오자 둘은 문이 없다고 했어요.

두두는 밖에 앉았어요. 조금 지나 해가 움직였어요. 우성이 집 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성이 집은 아예 반짝였어요. 그늘은 두두 쪽으로 가 있었어요.

우성이는 끈을 옮겼어요. 이번에는 나무뿌리에 걸렸어요. 지성이가 들자 두두 발에 닿았어요. 셋은 줄을 내려놓았어요. 그늘은 줄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보리가 물을 들고 왔어요. 어디 앉으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우성이는 네모 안을 보았다가 두두 옆을 보았어요. '지금은 여기.' 네 사람은 나무뿌리를 피해 둘러앉았어요.

지성이가 기도하며 오늘 그늘이 고맙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물을 마신 뒤 끈을 감았어요. 떨어진 종이도 주웠어요. 두두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쳤어요.

집으로 갈 때 지성이가 물었어요. '우리 집은?' 우성이가 나무를 가리켰어요.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느루가 뿌리 옆을 지나갔어요. 네모가 없어서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자연을 내 소유로만 여기지 않고 다른 생명과 함께 씁니다. 끈은 놀이가 끝나면 모두 회수합니다.

50 / 70

같이 살고 싶은 이야기

불 끄기 전에 지성이가 물은 것



불을 끄기 전에 지성이가 물었어요. '햇님 달님은 왜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셔?' 쿠마타는 이불을 펴던 손을 멈췄어요. 우성이는 대답을 들으려고 베개를 세웠어요.

쿠마타는 마당 가지를 모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누구 목소리부터 듣고 싶은지 이야기했어요. 보리는 지성이가 자다가 웃던 얼굴을 말했어요. 지성이는 자기가 언제 웃었느냐고 물었어요.

'자는 중이라 모를 수도 있지.' 보리가 말했어요. 우성이는 햇님 달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생각했어요. 지성이가 오늘 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좋아하실까요.

우성이는 베개를 눕히고 기도했어요. '달님, 저 오늘 별로 멋진 일은 못 했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기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오늘 만든 기차 얘기를 했어요.

지성이도 끼어들었어요. 자기는 기차 인형을 태웠다고요. 보리와 쿠마타가 듣고 있었어요. 말이 길어져 이불 한쪽이 흘러내렸어요. 쿠마타는 그걸 다시 덮어 주었어요.

마지막에 지성이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내일 것도 있어.' 보리가 알겠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자면서 할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달빛이 이불 끝까지 와 있었어요. 오늘 방에는 벌써 충분히 많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연두집 친구들의 대화로 풀어 쓴 창작입니다. 친구들의 비유나 기도를 실제 말씀의 직접 인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7부

비 오는 날의 마당 잔치

51~60편

잔치가 먼저 젖었어

비 맞은 잔치 그림



마당 잔치 그림을 다 그렸는데 비가 왔어요. 우성이는 그림을 안고 처마 밑으로 뛰었어요. 지성이가 들고 있던 해 그림에서는 노란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해가 비를 맞았어요.

두두는 잔치를 내일로 미루자고 했어요. 보리는 내일은 반죽을 많이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모리는 덮을 천을 찾으러 갔어요. 우성이는 젖은 그림 위에 손을 올렸다가 노란 손바닥을 보았어요.

'햇님, 저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우성이는 처마 끝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 좀 속상해요. 그림도 오래 그렸어요.' 지성이가 자기 그림을 형 옆에 눕혔어요. 두 그림의 물이 가운데서 만났어요.

모리가 가져온 천도 작았어요. 마당 전체를 덮을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은 빵과 책부터 실내로 옮겼어요. 우성이는 젖은 그림을 낮은 선반 위에 폈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게 끝만 눌렀어요.

지성이가 번진 노란 물을 보았어요. 그 옆에는 파란 물이 번져 있었어요. '여긴 새 색이야.' 우성이는 자기 그림을 다시 보았어요. 원래 해에는 없던 연두색이 가장자리에 생겼어요.

두두가 문 앞에서 물었어요. '잔치는 취소야?' 우성이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어요. 지성이는 번진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림은 아직 하는 중이야.' 비는 처마 밖에서 계속 왔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실망을 바로 감사로 바꾸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속상한 마음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둡니다.

큰 천의 작은 구멍

큰 천 속에 숨어 버린 두 얼굴



쿠마타가 창고에서 큰 천을 꺼냈어요. 우성이와 지성이는 양 끝을 들었어요. 천 가운데가 땅에 끌렸어요. 지성이는 팔을 높였지만 가운데는 더 낮아졌어요.

우성이가 혼자 더 들어 보려 했어요. 천이 얼굴을 덮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지성이 어디 있어?' 지성이도 천 속에 있었어요. 쿠마타가 가운데를 받쳐 두 얼굴을 꺼내 주었어요.

셋은 천을 길게 접었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처마 밑에 펼치자 지성이가 작은 구멍을 찾았어요. 쿠마타는 오래된 천이라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모리는 덧댈 천 조각을 가져왔어요. '하나, 구멍 찾기. 둘, 조각 대기. 셋, 꿰매기.' 하나는 벌써 지성이가 했어요. 우성이는 실을 건넸고 지성이는 접힌 데를 폈어요. 쿠마타는 천이 미끄러지지 않게 받쳤어요.

꿰맨 자리에 작은 네모가 생겼어요. 지성이는 그것부터 자랑했어요. 쿠마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네가 먼저 봤지.' 우성이는 아까 혼자 들다가 천을 뒤집어쓴 일이 생각나서 킥 웃었어요.

천은 낮은 준비 탁자 위를 덮었어요. 지성이가 밑을 들여다보았어요. '형아, 여기 들어오면 또 안 보이겠다.' 우성이가 천 끝을 살짝 들어 주었어요. 지성이 얼굴이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왔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혼자 버티는 것을 정성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 설치와 도구 작업은 아이의 역할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두두의 빗물 악단

처마 밑 빈 통 악단



두두가 처마 밑에 빈 통을 놓았어요. 빗물이 통 바닥을 똑 쳤어요. 두두는 옆에 다른 통을 놓았어요. 이번에는 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잔치 음악이 생겼어요.

두두가 뚜껑을 치자 통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지성이도 숟가락으로 따라 쳤어요. 모리가 귀를 만졌어요. 해달은 자기 돌이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두두가 뚜껑을 무릎에 놓았어요. 지성이도 손을 멈췄어요. 똑. 뚱. 똑. 제일 작은 통에서는 한참 만에 톡 소리가 났어요. 지성이가 그 통 가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작은 통 위에는 잎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잎 끝에 물이 모였다가 떨어졌어요. 두두가 그 소리에 맞춰 손가락으로 무릎을 쳤어요. 지성이는 큰 통이 울릴 때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오는 통을 칠 수 없어서 두두 무릎 옆에서 발을 굴렀어요. 그 소리는 두두에게만 들렸어요. 두두는 뚜껑을 더 치지 않았어요. 자기 옆에 아주 작은 악단원이 있었거든요.

비가 가늘어지자 통들도 천천히 조용해졌어요. 두두가 마지막 소리를 기다렸어요. 뒤에서 해달이 재채기했어요. 두두는 뚜껑을 들었다 놓았어요. 공연이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함께 읽는 어른께

이 편은 놀이와 소리의 우스움을 살린 편입니다. 매 편의 끝에 교훈이나 기도 문장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느루가 맡은 문

느루가 대문 아래 앉았어요



잔치 준비 일을 나누는데 느루가 입구를 맡고 싶다고 했어요. 두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대문을 여닫기에는 느루가 너무 작았어요. 느루는 문을 들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느루는 대문 아래에 앉았어요. 피오가 들어오다가 높은 턱 앞에서 멈췄어요. 느루는 그걸 보았어요. 지성이가 작은 판자를 가져오자 모리가 흔들리지 않게 놓아 주었어요.

이번에는 뇨끼가 왔어요. 목은 문 위로 지나갔지만 가방이 기둥에 닿았어요. 느루가 불렀어요. 우성이는 가방을 받아 안쪽으로 옮겼어요. 뇨끼는 몸을 옆으로 비틀지 않고 들어왔어요.

두두는 입구로 돌아왔어요. 느루가 하는 일을 보고 옆에 앉았어요. 느루는 다음 친구를 기다렸어요. 문은 아예 활짝 열어 두었어요. 닫는 것보다 볼 것이 많았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느루 안 힘들어?' 느루는 잎 그늘을 조금 옮겨 달라고 했어요. 두두가 자기 큰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느루는 처음엔 고맙다고 했다가 너무 어둡다고 했어요.

두두가 한 뼘 비켜섰어요. 입구에 작은 그늘이 남았어요. 그때 느루가 말했어요. '두두도 들어와야지.' 두두는 자기가 아직 밖에 서 있는 줄 몰랐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입구를 통과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느루의 몸에 안 맞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관찰과 안내도 실제 역할로 대우하고 필요한 쉼을 묻습니다.

돌멩이들은 회의 중

해달 돌들이 먼저 앉은 자리



해달이 잔치 탁자에 돌을 늘어놓았어요. 두두는 그 자리에 컵을 놓으려다 멈췄어요. '얘들 먼저 앉았어.' 해달이 말했어요. 두두가 컵을 들고 우성이를 보았어요.

해달에게는 돌마다 할 말이 있었어요. 납작한 돌은 탁자가 좋고, 둥근 돌은 그늘이 좋대요. 지성이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만 해달은 아주 바빴어요.

우성이가 낮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돌 탁자를 놓으면?' 해달은 돌들을 보았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두두는 무릎을 굽혔어요. 자기도 회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두두는 컵을 탁자 아래로 내려 보였어요. 컵도 앉고 싶다고요. 지성이가 웃었어요. 해달은 마침내 돌 하나를 상자로 옮겼어요. 다른 돌들도 차례로 따라갔어요.

돌 상자는 탁자 옆 그늘에 놓였어요. 해달은 납작한 돌을 맨 앞에 앉혔어요. 두두는 빈 탁자에 컵을 놓았어요. 우성이가 물었어요. '회의 끝났어?' 해달은 아직 한 명 남았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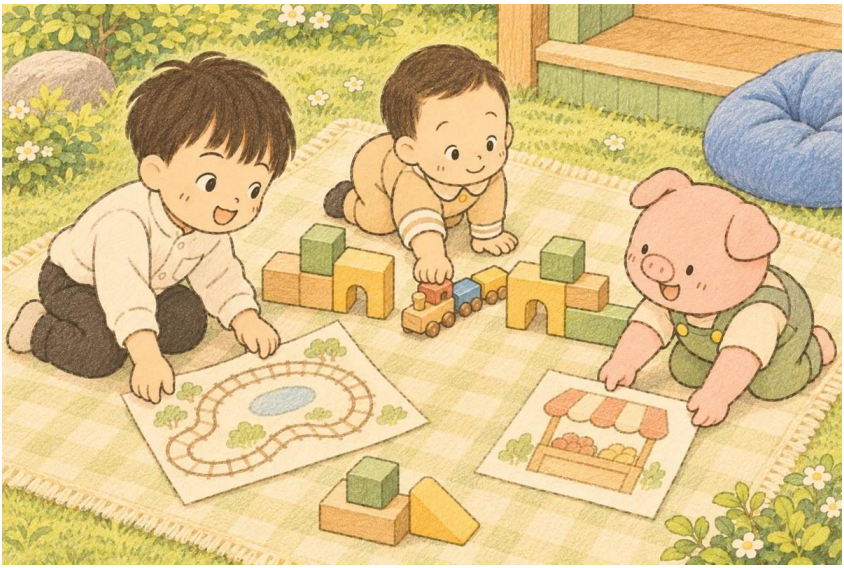
해달이 자기 배를 톡 쳤어요. '나는 어디 앉지?' 지성이는 돌 상자 옆을 가리켰어요. 해달이 앉자 돌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모두 제자리에 잘 앉은 모양이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해달이 돌에게 성격을 붙이는 것은 놀이입니다. 아이의 상상에 잠깐 참여하며 함께 쓸 자리를 조정합니다.

한 뼘도 내주기 싫어

기차 길 위에 차린 두두 가게



우성이는 마당에 작은 기차 길을 만들고 싶었어요. 두두는 같은 곳에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둘은 종이에 자기 자리를 그렸어요. 종이를 겹치자 가게가 기차 위에 앉았어요.

두두는 가게를 줄이기 싫었어요. 우성이도 길을 접기 싫었어요. 지성이는 옆에서 작은 나무 인형을 밀었어요. 인형은 가게 앞에서 더 못 갔어요. 길이 막혔거든요.

'가게엔 왜 그렇게 많이 놓아?' 우성이가 물었어요. 두두는 빵과 그릇을 한 번에 놓으려면 넓어야 한다고 했어요. 두두도 물었어요. '길은 왜 둥글어야 해?' 우성이는 돌아오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둘은 종이를 따로 다시 폈어요. 우성이는 길 한쪽을 길게 늘였어요. 두두는 손님 서는 곳을 옆으로 옮겼어요. 지성이는 인형을 밀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가게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저는 두두가 그냥 비켜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가게가 있어도 기차가 갈 수 있어요.' 두두는 가게 앞에 낮은 선반을 놓았어요.

첫 손님은 지성이 인형이었어요. 두두가 빵을 건네는 흉내를 냈어요. 우성이가 기차를 멈췄어요. 인형은 말이 없었어요. 지성이가 대신 말했어요. '줄 서야 된대.' 두두는 자기 가게 첫 규칙을 그때 들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상대가 무엇 때문에 자리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누가 더 좋은 마음인지 판정하기보다 실제로 시험해 함께 정합니다.

57 / 70

운동화가 쉬는 자리

문 뒤에 숨긴 젖은 운동화



지성이 운동화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잔치 준비를 하다가 젖은 풀밭을 밟았어요. 지성이는 신발을 벗어 문 뒤에 숨겼어요. 젖었다고 말하면 집에 가라고 할까 봐요.

우성이는 동생이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발 시려?' 지성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발가락은 바닥에서 자꾸 오그라들었어요. 보리가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지성이는 신발이 아니라 자기가 젖은 것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보리는 발부터 닦자고 했어요. 우성이가 마른 양말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동생이 기다리는 동안 형아가 찾았어요.

모리는 신발을 닦아 바람 드는 그늘에 놓았어요. 뜨거운 불 옆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지성이는 작은 실내 신발을 빌렸어요. 자기 신발보다 조금 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잠깐 쉬며 지성이가 기도했어요. '햇님, 저는 계속 돕고 싶어서 안 젖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발이 따뜻해요. 보리랑 형아가 도와줬어요.' 보리는 그 말을 들으며 수건을 널었어요.

두두가 마른 자리에 신발 그림을 놓았어요. 진짜 신발은 두 켤레였어요. 두두 것도 젖어 있었거든요. 지성이가 옆으로 비켜 주었어요. 오늘 운동화들도 같이 쉬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돕는 사람도 필요를 말하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젖은 신발을 급히 불로 말리는 장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종소리 말고도

빗소리에 묻힌 잔치 종



잔치 시작을 알릴 작은 종을 두두가 맡았어요. 처마 밑에서 딸랑 울렸어요. 빗소리가 더 컸어요. 피오는 마당 반대편에서 두두가 손만 흔드는 줄 알았어요.

두두는 더 크게 울리려 했어요. 옆의 지성이가 귀를 막았어요. '두두, 귀 아파!' 두두가 팔을 내렸어요. '그럼 어떡해? 더 작게? 더 멀리?' 우성이가 피오 쪽으로 달려갔어요.

우성이는 피오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잔치 시작이야!' 피오가 폴짝 뛰었어요. '간다!' 느루는 종소리를 듣고도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어제는 다른 자리에서 모였거든요.

모리가 컵과 방석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 컵. 둘, 방석. 여기로.' 지성이는 그 그림을 들고 느루와 함께 갔어요. 두두는 입구 가까이에서 종을 작게 울렸어요. 친구들이 다른 길로 같은 곳에 모였어요.

함께 앉아 기도할 때 두두가 둘러보았어요. '햇님, 달님, 저희 모였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우성이는 마당 쪽을 한 번 더 살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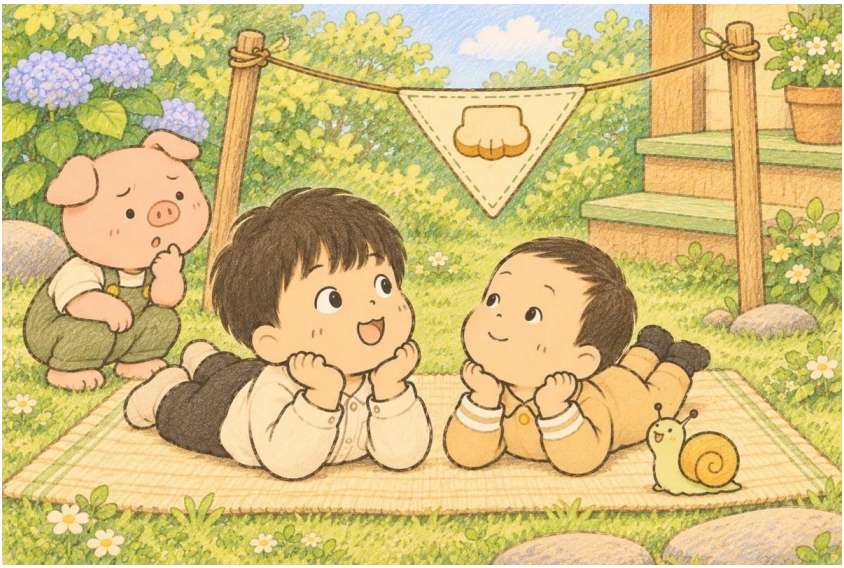
쿠마타가 하품하며 왔어요. 종은 들었는데 일어나는 데 오래 걸렸대요. 두두는 다시 종을 들지 않았어요. 쿠마타가 이미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대신 방석 큰 쪽을 가리켰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모이는 약속을 소리 한 가지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그림과 직접 전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감각 차이를 믿음의 부족으로 읽지 않습니다.

깃발이 거꾸로

느루 눈에는 빵이 거꾸로



지성이가 잔치 깃발을 낮은 줄에 달았어요. 컵 그림은 컵 있는 곳, 빵 그림은 보리 있는 곳이었어요. 느루가 빵 그림 아래에서 멈췄어요. '이건 뭐야?'

지성이가 대답했어요. '빵이잖아.' 느루는 고개를 더 올렸어요. 그림은 느루 쪽으로 접혀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우성이는 쪼그려 앉았다가 바닥에 배를 대었어요.

우성이 눈앞에서는 빵이 모자처럼 보였어요. 지성이는 형 옆에 엎드렸어요. 둘은 한참 웃었어요. 두두도 이유를 모르고 따라 누웠다가 머리 위 깃발을 보았어요.

모리가 낮은 받침을 가져왔어요. 깃발을 꽂아 세우니 접히지 않았어요. 느루는 이번에는 빵을 알아보았어요. 지성이는 다른 그림도 한 번씩 바닥에서 보았어요.

두두는 끝까지 누워 있었어요. 구름이 빵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보리가 진짜 빵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어요. 두두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꾸로 보아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잔치가 끝난 뒤 우성이는 깃발을 걷었어요. 지성이는 받침부터 치우려다 느루를 보았어요. 느루는 아직 빵 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빵 그림 하나는 조금 더 남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상대가 보는 높이와 방향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친구의 질문을 틀린 답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60 / 70

비는 멎었는데

잔치가 끝나자 비가 멎었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 비가 멎었어요. 두두는 하늘을 보았어요. '지금 멎네.' 우성이는 웃다가 젖은 천을 보았어요. 잔치는 작은 처마 밑에서 이미 다 했어요.

친구들은 집으로 가려다 빈 통을 보았어요. 빗물 악단 통에 물이 가득했어요. 모리는 필요한 물을 작은 통에 나눠 옮겼어요. 형제는 가벼워진 빈 통을 정리했어요.

보리는 남은 빵을 싸 주었어요. 피오는 깃발 하나가 아직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느루가 빵 자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두었다고 지성이가 말했어요. 피오는 느루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우성이는 손바닥의 노란 물감을 보았어요. '햇님, 오늘 잔치는 생각이랑 달랐어요. 처마 밑이 좁아서 다 붙어 앉았어요.' 보리는 젖은 천을 접다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쿠마타는 무거운 것을 옮긴 다음 빈백에 앉았어요. 두두는 뚜껑을 가져와 쿠마타 옆에 놓았어요. 잠이 잘 오는 음악을 해 주겠다고요. 쿠마타가 한쪽 눈을 떴어요.

두두는 뚜껑을 뒤집어 고인 물만 버렸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앉았어요. 마당에는 새 소리가 났어요. 오늘 악단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치지 않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기도와 감사가 뒷정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행동과 함께 둡니다. 51편부터 이어진 잔치 연작의 작은 마무리입니다.

8부

오래 함께 살고 싶어서

61~70편

61 / 70

주머니가 두 개인 날

오리 옷 주머니 두 개



지성이 오리 옷에는 주머니가 두 개 있었어요. 한쪽에는 자기 돌, 한쪽에는 친구에게 줄 예쁜 잎이었어요. 우성이는 동생이 걸을 때마다 주머니가 기우는 것을 보았어요.

피오가 잎을 보았어요. 지성이는 가장 예쁜 잎을 주었어요. 그다음 잎도 주었어요. 피오 앞에 잎이 쌓였어요. 피오가 뒤로 물러나자 지성이가 자기 돌 주머니도 열었어요.

우성이가 물었어요. '피오, 뭐가 필요해?' 피오가 외쳤어요. '비! 비 가릴 거!' 지성이는 잎 더미를 보았어요. 주려고 들고 온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피오는 넓고 가벼운 잎 하나를 골랐어요. 나머지는 지성이가 도로 챙겼어요. 돌도 자기 주머니에 남았어요. 우성이가 잎을 작은 종이봉투에 나누어 담는 것을 도왔어요.

지성이는 작게 기도했어요. '햇님, 피오는 큰 잎 하나만 좋대요. 제 돌은 제가 좋아요.' 피오는 잎을 머리 위에 살짝 들어 보였어요. 한 장인데 자기 몸은 다 가려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성이가 동생의 기운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이쪽은 뭐야?' '내 거.' '저쪽은?' '다음에 물어볼 거.' 지성이는 두 주머니를 번갈아 톡 쳤어요. 오늘은 둘 다 가벼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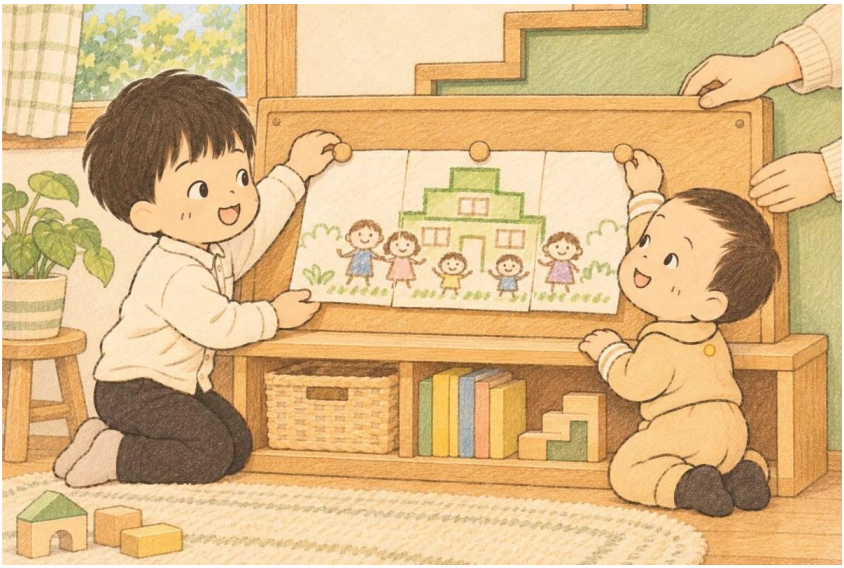
함께 읽는 어른께

다 내어 주어야 착하다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누는 사람의 필요와 받는 사람의 바람을 함께 묻습니다.

62 / 70

햇님 달님께 드릴 그림

옆으로 한 장씩 자라는 연두집 그림



지성이는 연두집을 그렸어요. 창문이 종이 밖으로 나가서 옆에 한 장을 더 붙였어요. 안에는 형아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건 햇님 달님께 드릴 거야.' 지성이는 그림을 두 손으로 들었어요.

우성이는 햇빛 드는 창가를 가리켰어요. 지성이는 거기 놓았다가 바람에 종이가 들리자 도로 안았어요. 보리는 어디에 놓으면 잘 볼 수 있고 오래 둘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자고 했어요.

친구들이 기도하는 자리 옆에 낮은 선반이 있었어요. 쿠마타가 모아 둔 나무에서 납작한 판을 골라 놓아 주었어요. 지성이는

그림이 넘어지지 않는지 보았어요. 우성이는 덧붙인 종이 뒤를 반듯하게 붙였어요.

지성이는 그림 앞에서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같이 살고 싶은 집을 그렸어요. 여기서 저희랑 함께해 주세요. 저는 친구들이 오면 문을 열어 줄 거예요.' 우성이도 그림 안의 자기를 찾아보았어요.

며칠 뒤 모리가 그림을 보러 왔어요. 지성이는 모리가 있는 곳을 가리켰어요. '이 안에도 들어와.' 모리가 종이 가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후드가 너무 크게 그려져 문에 꽉 끼어 있었어요.

지성이는 새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림을 바꾸려다 먼저 말했어요. '햇님, 달님, 문을 조금 넓힐게요.' 우성이는 테이프를 뜯었어요. 집은 오늘도 옆으로 한 장 더 자랐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봉헌의 마음을 그림과 기도로 표현한 연두집 장면 제안입니다. 공식 봉헌 절차나 봉헌물 취급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다.

63 / 70

형아 없는 오후의 목록

형아가 강가에 간 오후



우성이가 해달과 강가 납작돌에 돌을 고르러 나갔어요. 지성이는 모리와 마당에 남았어요. 형아가 돌아오면 보여 줄 것을 종이에 그렸어요. 공 굴리기, 물 마시기, 작은 집 만들기였어요.

공은 혼자 굴리니 혼자 가지러 가야 했어요. 물은 컵에 조금 흘렀어요. 작은 집은 마지막 나무 조각이 자꾸 넘어졌어요. 지성이는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려다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모리가 옆에 앉았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이거 잡아 줄 수 있어?' 모리는 한 조각만 받쳤어요. 지성이는 다른 조각을 세웠어요. 손을 놓자 작은 집이 서 있었어요.

지성이는 기도했어요. '햇님, 형아 없이 해 봤어요. 혼자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모리한테 물었어요.' 모리는 자기 손에 묻은 흙을 털었어요. 지성이는 종이에 모리 손도 그렸어요.

우성이가 돌아왔어요. 지성이는 종이를 펴 보였어요. 형은 먼저 작은 집을 보았어요. '혼자 했어?' 지성이가 모리를 가리켰어요. '여기는 같이.' 모리는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우성이가 강가에서 주워 온 돌을 작은 집 안에 넣으려 했어요. 지성이가 손을 막았어요. '아직 지붕이 흔들려.' 우성이는 돌을 쥔 채 옆에 앉았어요. 둘은 지붕이 가만해질 때까지 숨을 꾹 참았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지성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 보는 일과 도움받는 일을 함께 성장으로 다룹니다.

뇨끼는 문밖에 있어

문밖에 선 뇨끼



새 그림을 보러 친구들이 왔어요. 모리도 보리도 들어왔어요. 뇨끼는 문밖에 있었어요. 우성이가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뇨끼는 긴 목을 낮췄지만 가슴은 문에 닿았어요.

지성이가 문을 더 밀었어요. 이미 다 열린 문이었어요. 뇨끼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웃음이 날 때마다 목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우성이는 그림을 들고 나왔어요.

마당에서는 바람에 그림이 접혔어요. 우성이가 한쪽을 잡고 지성이가 다른 쪽을 잡았어요. 보리는 낮은 받침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세우니 뇨끼도 고개를 심하게 꺾지 않고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하나씩 밖으로 나왔어요. 모리는 뇨끼 옆 풀밭에 앉았어요. 지성이는 그림 속 문을 가리켰어요. '여긴 넓혀 놨어.' 뇨끼는 작은 그림 속의 자기 목을 찾아보았어요.

다 같이 간식을 먹기 전 우성이는 기도했어요. '햇님, 오늘은 마당에서 봐요. 뇨끼 목까지 다 들어와요.' 지성이가 덧붙였어요. '꼬리도요.' 뇨끼가 목을 조금 옆으로 기울였어요.

지성이가 물었어요. '그래도 집 안에 들어오고 싶어?' 뇨끼는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간식이 안에 있을 때.' 보리가 바구니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간식은 벌써 밖에 나와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큰 몸을 가진 친구에게 억지로 몸을 줄이거나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의 문 크기 변경을 확정하지 않고 활동 장소를 옮깁니다.

그늘에서도 인사해

볕을 찾다 그늘에 앉은 지성이



지성이는 볕 드는 계단에서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그런데 뇨끼가 지나가며 큰 그늘을 만들었어요. 지성이는 옆으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구름이 해를 가렸어요.

우성이가 동생을 보았어요. 지성이는 햇빛 있는 데를 찾고 있었어요. '햇님께 인사하려고.' 우성이도 하늘을 보았어요. 두꺼운 구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았어요.

보리가 부엌 창문을 열었어요. 지성이가 이유를 말했어요. 보리는 밀가루 묻은 손으로 턱을 괴었어요. '나는 밤에 불 끄고도 해.

깜깜해도 다 들으시던걸.' 지성이는 하늘을 한 번, 그늘을 한 번 보았어요.

지성이는 그늘에 도로 앉았어요. '햇님, 저 여기로 왔어요. 햇빛 찾다가 늦었어요.' 우성이는 옆에 앉았어요. 둘은 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오늘 모리에게 보여 줄 그림 이야기를 했어요.

해달이 물었어요. '여긴 왜 앉았어?' 지성이가 기도했다고 대답했어요. 해달은 시원해서 자기도 앉겠다고 했어요. 세 사람 그림자가 구름 밑에서 흐릿해졌어요.

햇빛이 돌아왔을 때 지성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인사를 했거든요. 해달은 자리를 조금 옮겼어요. 돌이 뜨거워질까 봐 그랬어요. 지성이는 해달이 찾은 그늘까지 따라갔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일상편의 햇빛은 하늘부모님의 마음을 비추는 상징입니다. 하늘부모님을 물리적인 해 안에만 계신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66 / 70

잠깐 빌린 말

‘모리가 그림 버렸대!’



두두가 우성이에게 달려왔어요. ‘모리가 우리 그림 버렸대.’ 우성이는 손에 든 붓을 내려놓았어요. 지성이도 들었어요. 아까까지 모리 책상에 있던 그림이 생각났어요.

두두는 해달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해달은 종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보았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지성이에게 모리가 그림을 싫어하나 보다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건 아직 아무도 안 들은 말이었어요.

셋은 모리에게 갔어요. 우성이가 물었어요. '우리 그림 어디 있어?' 모리는 책상 밑에서 판을 꺼냈어요. 그림은 거기 말리고 있었어요. 바깥으로 나간 종이는 찢어진 포장지였어요.

두두가 포장지를 펴 보았어요. 안쪽에 연필 선이 삐뚤빼뚤 그어져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림 같았어요. 두두는 자기가 잘못 전했다고 했어요. 우성이도 '모리가 그림 싫어한대.' 하고 말할 뻔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모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까지 갔어?' 우성이는 아직 안 했다고 했어요. 모리는 그림을 세웠어요. 두두는 해달에게 뛰어갔어요. '해달! 버린 거 아니래! 말리는 거래! 그건 포장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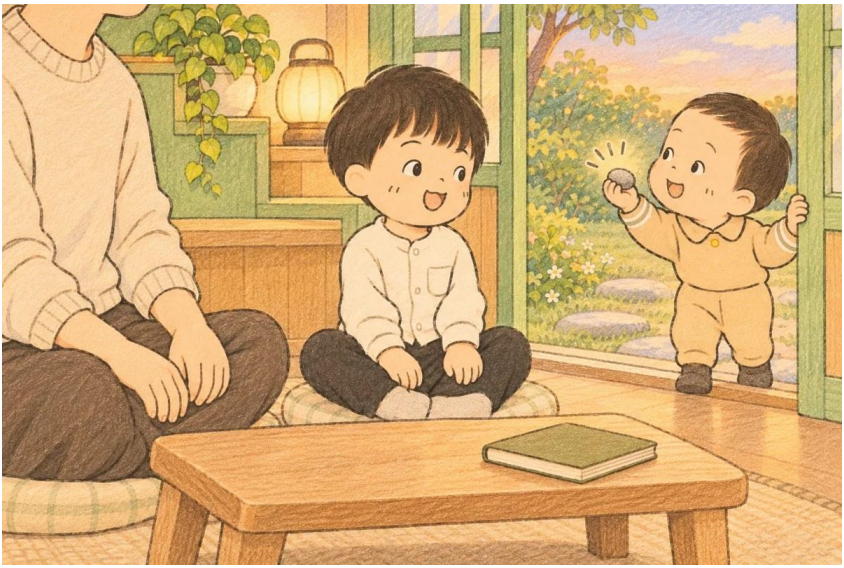
해달이 물었어요. '그럼 이 종이는 버려?' 두두는 이번엔 대답하기 전에 모리를 보았어요. 모리가 해달 돌 바구니를 가리켰어요. 포장지는 거기서 돌들 이불이 되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전해 들은 사실과 자기가 덧붙인 판단을 구별합니다. 소문을 막는 역할을 특정 친구의 착함이나 나쁨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쿠마타는 왜 기도해

빈백에 앉아 기도하는 쿠마타



우성이는 쿠마타가 빈백에 혼자 앉아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쿠마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성이는 빈백 옆에서 기다렸어요. 마당 일을 다 아는 쿠마타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했어요.

기도가 끝나자 우성이가 물었어요. '쿠마타도 모르는 게 있어?' 쿠마타는 있다고 했어요. 낮잠 깨서 피오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일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빈백 끝에 붙어 앉았어요.

'햇님 달님께 말하면 어떻게 돼?' 쿠마타는 잠깐 생각했어요. 자기가 혼자 다 안다고 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고 했어요. 피오에게는 내일 다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요.

우성이는 자기가 피오한테 대신 말해 줄까 생각했어요. 쿠마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쿠마타가 내일 직접 할 일이었어요. 그 대신 우성이가 오늘 재미있었던 일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우성이가 다리를 흔들었어요.

둘은 같이 잠깐 기도했어요. 우성이는 쿠마타와 앉아서 고마웠다고 했어요. 쿠마타는 우성이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고마웠다고 했어요. 지성이는 빈백 옆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성이가 와서 물었어요. '쿠마타, 내 것도 몰라?' 쿠마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성이는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어요. 오늘 발견한 돌이었어요. 쿠마타는 모르던 것을 하나 더 알게 되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큰 친구도 기도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큰 친구의 걱정이나 일을 해결할 책임을 아이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대화는 창작입니다.

69 / 70

아직 그리지 않은 방

나중에 살 집을 그리는 형제



우성이는 나중에 살 집을 그렸어요. 계단도 길고 미끄럼틀도 길었어요. 지성이는 자기 방을 옆에 붙였어요. 방보다 자동차 그림이 더 컸어요. 보리가 옆에 앉았어요.

'여기서는 무슨 일 하고 싶어?' 보리가 물었어요. 우성이는 같이 밥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지성이는 늦게 온 친구를 기다리고 싶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자기도 아직 잘 몰랐어요.

모리가 수첩을 들고 마루에 앉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세 가지야. 하나, 약속 지키는 집. 둘, 다투면 다시 말하는 집. 셋, 아프면 돌봐 주는 집.' 우성이는 미끄럼틀 옆에 작은 부엌을 그렸어요.

지성이는 문을 크게 그렸어요. 햇님 달님도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눈에 보이는 방을 하나 더 그리려다가 멈췄어요. 보리는 저녁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방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그림 앞에서 기도했어요. '햇님, 달님, 제가 커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랑 살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잘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성이는 자기 자동차에 작은 자리를 더 그렸어요.

보리가 누구 자리냐고 물었어요. 지성이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고 우성이에게 연필을 건넸어요. 다음 방은 형아가 그려도 되었어요. 종이 옆에는 아직 하얀 곳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미래의 가족 형태나 아이의 배우자 등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오래 함께 살아갈 바람을 그림과 대화에 담았습니다.

70 / 70

불을 끄러 갔다가

마당 불 끄러 간 형아



우성이가 지성이 이불 끝을 놓으며 말했어요. '마당 불 끄고 올게.' 지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성이가 문을 나가자 방 안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어요.

마당에서는 모리가 젖은 우산을 접고 있었어요. 우성이는 우산 끝이 바닥에 닿지 않게 문을 잡아 주었어요. 모리는 고맙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불 쪽으로 가다가 두두의 벗어 둔 겉옷을 보았어요.

겉옷을 걸어 놓으니 주머니에서 돌 하나가 나왔어요. 해달이 찾던 돌이었어요. 우성이는 빈백 옆 해달에게 가져갔어요. 해달은 자고 있었어요. 돌은 낮은 상자에 가만히 놓아 두었어요.

집 안에서 지성이가 불렀어요. '형아, 불은?' 우성이는 그제야 불을 보았어요. 아직 켜져 있었어요. 낮은 스위치를 내리고 돌아섰어요. 문 안쪽에서 나온 작은 빛은 남아 있었어요.

우성이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끝을 잡았어요. 지성이가 왜 오래 걸렸느냐고 물었어요. 우성이는 우산과 겉옷과 돌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이는 듣다가 기도했어요. '달님, 형아가 왔어요. 오늘 저희랑 함께 주무세요.'

우성이가 옆에 누웠어요. '안 잤네.' 지성이가 이불 속에서 발을 폈어요. 형아가 돌아오면 발 따뜻한 것을 알려 주려고 했대요. 우성이는 자기 발도 넣었어요. 조금 뒤에는 어느 쪽이 먼저 따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함께 읽는 어른께

70편 묶음의 마무리이며 전체 보물상자 최종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행동과 함께 잠드는 기쁨으로 닫았습니다.

따로 엮는『우리 가족 이야기』

아래 두 편은 연두집 시리즈 밖, 실제 한일 가족의 생활을 담은
별도 책『우리 가족 이야기』에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49편「다녀왔어가 두 번」
68편「엄마 말로도 들려줘」

이 책에 대하여

그림책 70편 v01(2026-11-07)을 바탕으로 한 개정판 가안입니다.

시리즈에 싣는 68편 가운데 59편의 문장을 다듬었고, 부제는 모두 사건을 보여 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사람 엄마·아빠가 나오던 편은 숲 친구들이 그 자리를 맡도록 고쳤습니다. 49·68편은『우리 가족 이야기』로 옮겼습니다.

이야기 속 기도는 햇님·달님께 드리는 말로 썼습니다. 하늘부모님이라는 이름은 '함께 읽는 어른께'에만 둡니다.

그림은 v01 대표 그림을 그대로 썼으며, 통일안에 따라 다시 그릴 예정입니다.

문체: 해요체, 과거형 기본(2026-11-11 결정). 2026-11-14 결정(E04~E07) 반영.